

感應篇
卷四

ハ 6
2476
4



門八三六
2476
54

太上感應篇圖說卷之四目錄

臣道善報

王祐

晏子

顏真卿

劉大夏

章綸

臣道惡報

王氏

嚴世蕃

李符

楊大年

趙師異

盧穆

行人官

石崇

王黼

子道惡報

盧鞏

孔墳

倪九

徐姓兄弟

王四

夫婦善報



太上感應篇

目錄

目錄

宋弘

劉庭式

夫婦惡報

滿少卿

李司鑑

校尉鄰婦

鄂州夔人

厲氏

兄弟善報

蕭修撰

元德秀

趙彥霄

鄭昭先之祖

兄弟惡報

劉君祥

陳祈

朋友善報

范堯夫

京三郎

朋友惡報

漳州丁姓

荆溪二人

狄靈慶

陳進士

王佑



宋太祖疑符彥卿有異志遣王祐按之謂祐還當與顯秩
祐不徇太祖意為白其事竟不大用乃手植三槐于庭曰
吾子孫必有為三公者子旦為宋賢宰相

송나라 리조황제 부연경의 큰 뜻이 잇는가의 심흥사왕우를
보너여 안히기 하신리서우느려너와늘내날을 맞치고도라오면맛
당어놓흔비슬을흔하이라하시니이느그허물을귀어히었고저
하시마리왕위의미안히기하미그러미어거늘도로허언경의의
미음을알외고리조의뜻을조지아나하나일노인흥여마춤
크게쓰이지못하엿더라왕위집뜰의외화나무씨죽르심어
와늘너스손의반드시삼공될저이시리라하너너그아드르죄송나
라이진정승이되니라

晏子



齊有彗星景公坐柏寢而泣晏子問之公曰寡人聞之彗
 星出所向之國君當之今彗向吾國是以悲晏子曰君之
 行義固應無德于國穿陂池則欲其涸以廣也為臺榭則
 欲其高且大也賦斂如偽奪誅戮如仇讎自臣觀之字之
 將出彗星庸何懼乎公欲使人禳之晏子曰無益也天道
 不諂不二其命若之何其禳之使神可祝而來亦可禳而
 去也百姓苦怨以萬數君令一人禳之安能勝眾口乎公
 欲禳災莫如修德

제정공이혜성으로보고스름피울것을안직그연고를무른디공이
 답왕과인이드르니혜성이향하는나라의님군이희롭다하
 너니이제혜성이정히너나라를향하지라이러므로슬허
 흥노라아직왕은의흥시는닐이진실노던이업스시니드르

스름이모조를만르시뎡부키김고너로로흥시며지남을지으시뎡
 부뒤롭고크로로흥시며부채를거두시뎡속여썸앗듯흥시며
 사름죽이기를구슈죽이듯흥시니신으로보전키혜성이오히
 러힐흥리가흥이다흥거늘공이사름으로흥여곰괴도코저
 흥취안죄왕괴도흥여가익지아니흥니다년도논아당리
 아니흥샤그명을루번흥지아니흥시니괴도흥드르무어흥
 리이고이제빙기성이괴로와흥고원망흥논죄만으로써헬
 거시여늘흥사름으로흥여곰괴도흥라흥시니어지능히여
 러니남을막으리이고군이괴도코저흥거른덕을다스그심
 만조지못흥니다흥더라

顏真卿



唐顏真卿生平忠直楊國忠惡之出為平原太守祿山反
 河北二十四郡或降或陷惟平原得真卿賴以無虞後陞
 尚書李希烈陷汝州宰相盧杞欲以此陰害之奏稱希烈
 悍惡非真卿重德厚望不能服之上使往諭既至希烈積
 薪庭中曰若不順我當須自燒真卿宣布朝廷威福示以
 君臣大義然後以身投火逆黨驚異急救真卿作遺表自
 撰墓誌終不面賊而坐因縊死之時年七十有七朝廷聞
 之輟朝五日謚文忠後賊平遷柩還葬棺朽而公貌如生
 道士邢和璞曰此謂形仙也雖藏于鐵石之中亦當劈裂
 飛去其後家人見公在同德寺殿上行走追之不及乃知
 真仙去矣

당나라 안진경이 성품이 충직하여 그 큰 나무를 베어 하여 아나

니양국충이뫼이뫼여뫼최평원천희슈를시경더니안
 산이반흥뫼하북쪽이십삼군이모다함몰흥되오직평원
 고을은진경을힘입어무스흥여터라구후의벼슬을도
 아상쇠이니르러터니밋니희렬이반흥여뫼쥬를함몰흥
 니저상노괴이렬를다진경을히코적흥여상외알외여알
 니희렬이소오남고강악흥니안진경의후덕중망이아
 면능히달니여항복바지못하라흥되샹이올히니기
 샤진경으로흥여곰희렬이게보지시니진경이뫼희렬의
 게니르뫼희렬이들가온되쥬를쫓코적혀알만일뫼게쥬
 리아니흥면이뫼의다쥬우리라흥니진경이조정위덕과
 군신죄의르니르고모음을니러뫼의터지려흥니적다
 이
 놀나고괴이히뫼여급히만기흥여구흥지라진경이

의유표를지어경수로보낙고안즈뫼도적을지려아니흥
 인흥여뫼뫼여쥬이니시년이칠십칠쳐라조정이듯고크
 게진동흥며시흔를문충공이라흥니라그후도적이평
 정흥터이구흥여도라을시관은쥬어시되공의얼골은
 싱적스흥지라도스형화박이와일이르니바형선이
 니비로ꫀ칠리쥬가온되감초아도맛춤니치치고비상년
 흥리다흥다니가후의지마사람이공을도흥스라철의셔만
 나보니천우흥로건닐거늘쥬라도밋지못스흥지라이에
 춤신선이되어스쥬를알니러라

劉大夏



成化中朝廷好寶玩內侍言宣德朝嘗遣王三保使西洋
 獲寶無數上命內侍至兵部查西洋水程時項忠爲尚書
 劉大夏爲車駕郎中項使一都吏檢舊案劉先得匿之都
 吏徧檢不得凡三日劉竟不言項咎吏曰無矣後事寢項
 呼吏再詰之劉笑曰三保下西洋時勞擾軍民死者萬計
 縱得珍寶何益舊案雖在亦當燬之尚追究有無耶項降
 位揖謝指其位曰公陰德不細此位不久當屬公矣後劉
 果爲兵部尚書

성화년간의 상이 보화를 표하는 사실이니 말하되 조석
 의 일즉 왕상으로부터 하여금 서양국의 사신하여 보화를 소미무
 슈하 다하니 상이 즉시 병부의 명하여 서양국물길은 상고
 하라하시니 이척항충은 병부상서요 누리하되 병부낭중이

라아천은명호여네스등능을츠즈르셔가되해본적어어감
 초고되지아니호니아천이삼일을츠즈되엇지못호지라향충
 이구아천은중척구호나또호호일어비셔그날이그척스더라고
 후의향충이그날은의호구호여드시무르니가되해소와갈향
 즈의삼외셔양국의너려가미구민을소요호여죽은지만여
 인이라비록보화를엇으나무숨유익호리오이제그문세
 잇더라호여도맛당이불질너어비시호려른오히려츠즈려
 호노도향충이척드라좌의너려샤레호고안킵스던즈리
 르르르최와갈공의음덕이척지아니호니오리지아니호
 여이자리의안즈리라호더니그후의기디해과연변음부상
 셔르호호여스더라

章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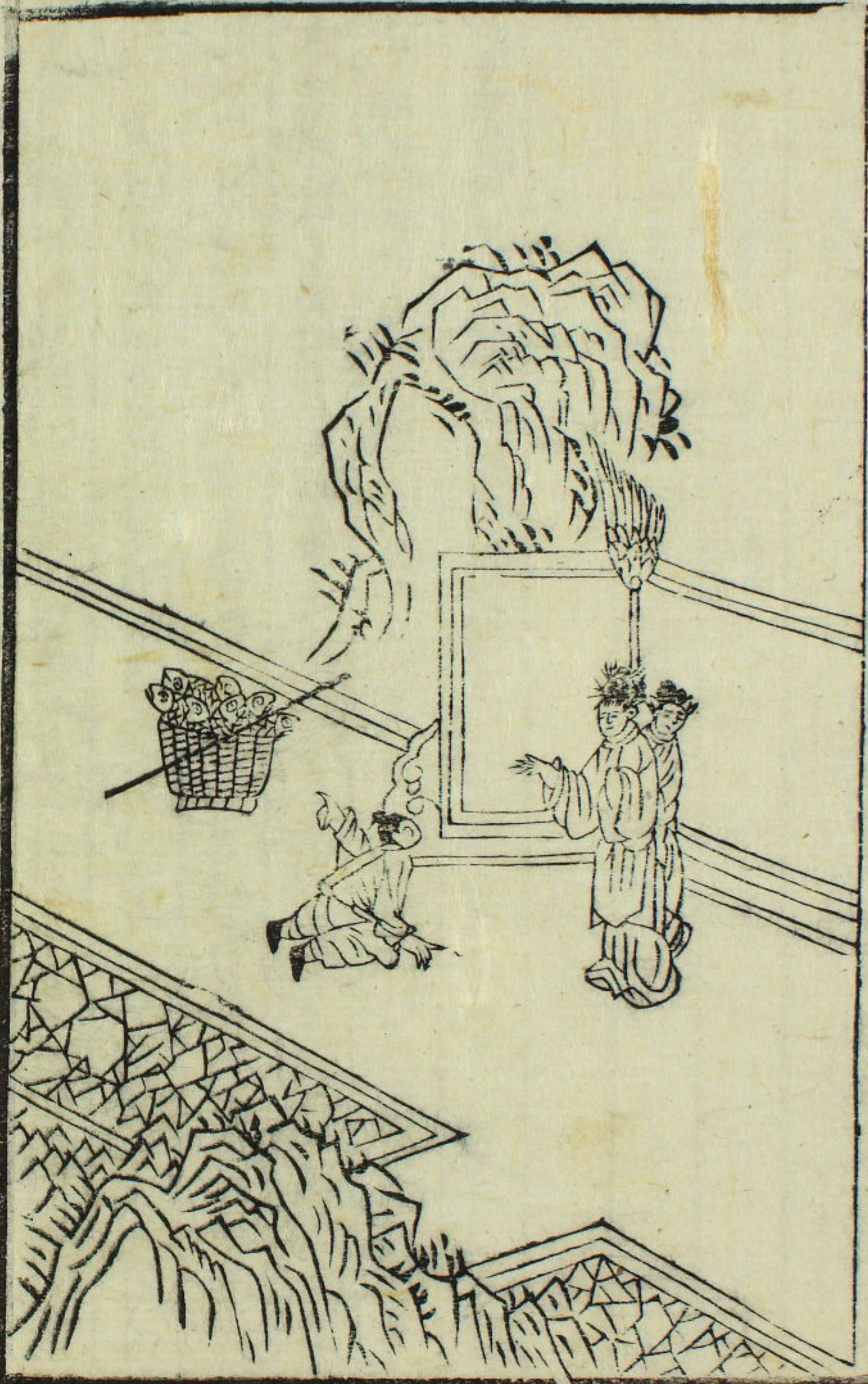
臣道善報

樂清章公綸景泰間為儀制司郎中以諫易儲下獄久被
 幽囚蟲生于首奇癢殊不可耐思欲以櫛治之苦無其器
 一日忽有羣雀在天井中共銜一物墮下視之乃新置一
 牙邊篋子也公感荷神貺謹珍藏之至今供家廟中又一
 日大雨漏床哀呼獄卒移就乾處方離一床之地墻壁轟
 然倒矣

낙청옹씨희장은간이라하는사름이경리년간의제스
 낭중벼슬은은하엿더니취스밧고는닐을간함으로저
 옥의나리워오리갓치인지라머리를오리비지못하여쥬
 린니머리의가득하니가려우물견디지못하니라비슬
 엿어밧고적하니엇을디어벼근심하니일일은은하연
 여러참시울며니비으로무어슬물고나라와뜰가온디

나리치거늘나아가보니이의시로만든비스하하히잇는지
 라공이크게감적하니신경이시긴바를알고그후의가
 묘의감초아공양하니라하로는큰비오며집우히삼누
 하여자리를적시거늘옥조을불너마른곳으로물들서
 비야하로는거름을움기미그브라미벼기이문혀지니이
 소하하늘이도으시미러라

王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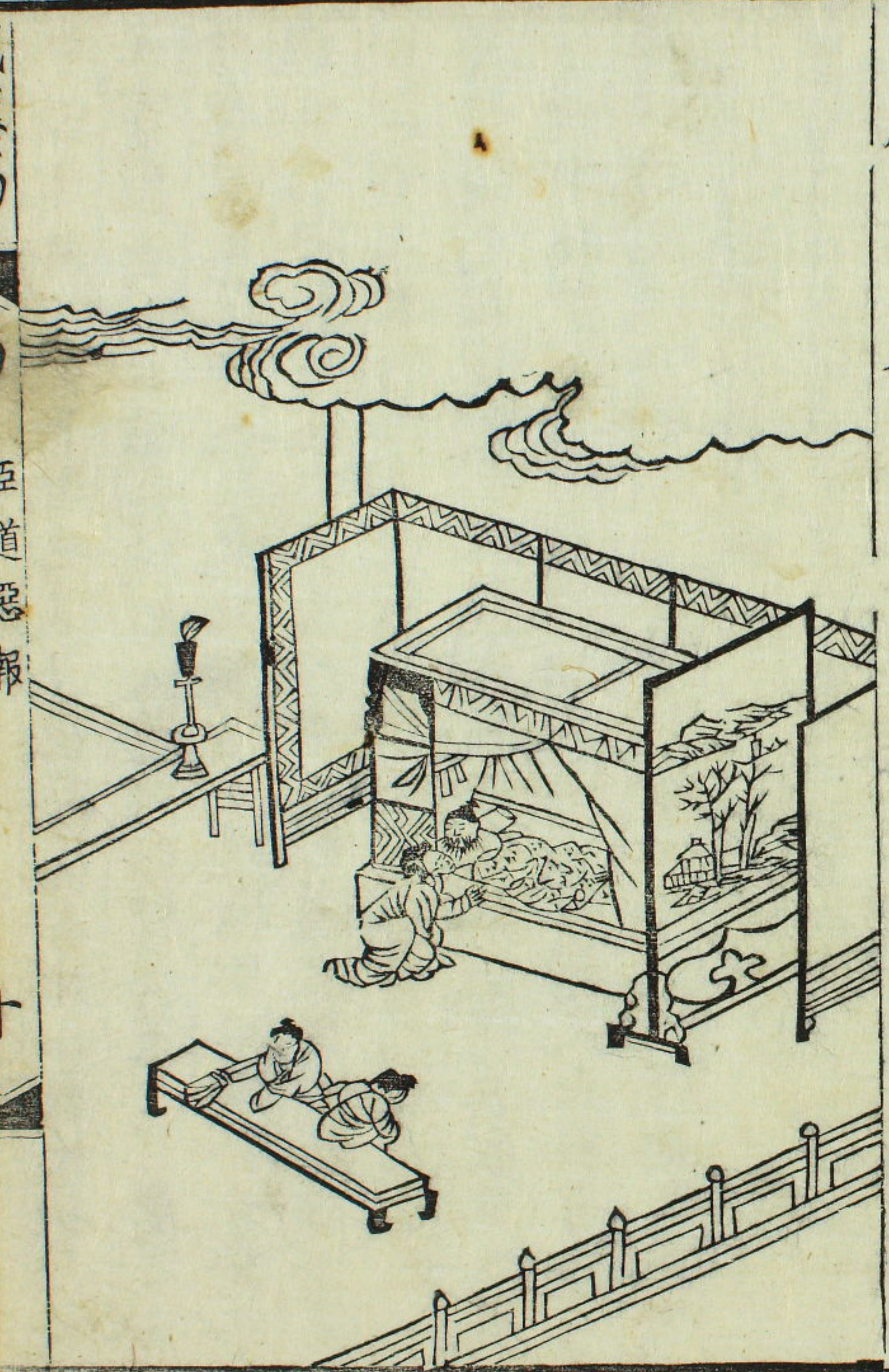


秦檜夫人王氏入宮顯仁太后賜饌因言近日魚絕少
 王氏曰妾家頗有之當以百尾進歸告檜檜咎其失言恐
 因此一物朝廷疑四方貢進過於帝室乃進青魚百尾太
 后笑曰我道這婆子邨果然檜及王氏欺罔之罪果報詳
 後

진회의부인왕시권중의드러가현인리후의조현은은시
 리희음식은먹이시며큰은사되근일의즈어라후는고기
 절귀항여어어보기어려다후시나왕시쥬항여왕천비의
 집의즈못잇스오니맛다이빅머리르드려진어케항리의
 다항도도라와회드려고항니회고말은드르크게놀나갈
 못항다우지저왕리고기극히귀항거늘이제만일빅머리나드
 리면일노인항여조령이의심항되스방의도항진봉이년

집의 문쳐하다 함며 또 훈남군의 의쳐다 함라 함리라 함고 드
 드여 침어 비가 머리르 드리며 스어 로라 날크르니 희보시
 고우쳐크은 사되니 나르티적과 스를 촌스럼다 함엇더니
 과연이로 다년 해아리 건되 스어 의철을 귀함으로 었지
 비가 머리로 록잇는고 함여 스더니 이제 침어 르를 가져 스어
 로알아 스도다 함시니 이는 간스 훈외로 빼 남군을 속여
 적의 의권을 가리우미라 그후 의진회와 왕시과 망
 함죄로 빼 함가지로 범을 밧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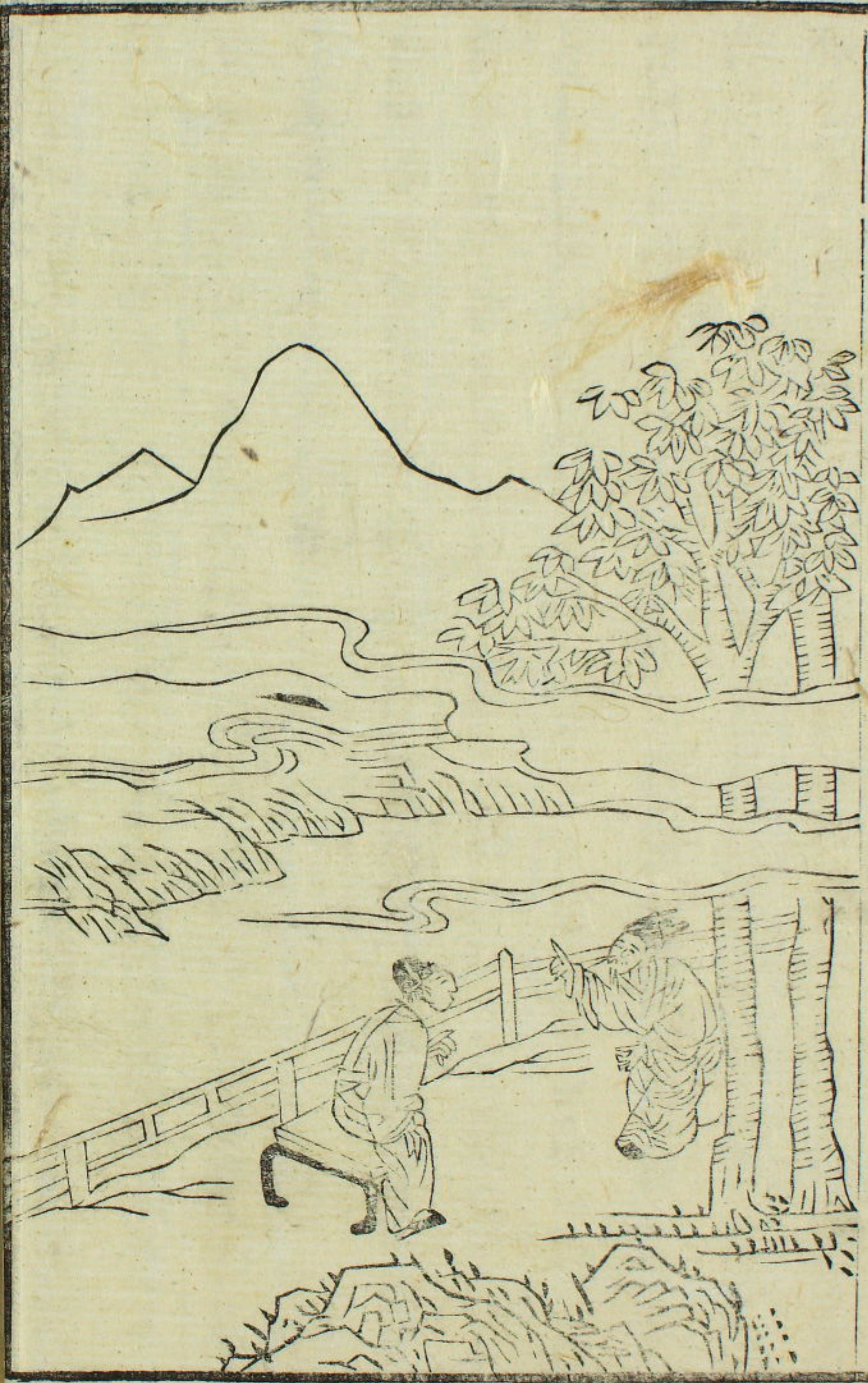
嚴世蕃



明嘉靖時嚴嵩權相也其子世蕃小有才知典故及邊事
 凡事能合上旨怙寵驕恣大通賄賂積金至八百萬有奇
 珍寶聲色極世之選臥而唾必一美女以口承之方發聲
 婢口已巧就謂之香唾孟雜用錦罽織成雙陸點位用美
 女三十人衣別二色世蕃每與客對藝喝點而女子已至
 其位謂之肉雙陸世蕃敗江陵郡守奉詔籍其家見臥榻
 下綾巾無數不省所用因袖其一以咨諸人左右有知者
 掩口曰此穢巾也每與女合則用一而棄之歲終數之謂
 之淫籌世蕃無子伏誅

명나라가 정오의 어미유이는 용천하는 정승이라 그 아들
 세번이 적이지 조와 지혜잇고 넷적스적이며 변바스르르
 능히말하는지라 민스의 상의 뜻은 마초와 총천이 비
 길적어는지라 스스로은 총을 밧고고만방스함며 또스
 방의 회뢰를 만히 밧으니 또흔금이 팔백만이 넘고 유유
 보화와 환호지물이며 성식의 고음이 일세의 극진함고
 항상 누어 침 밧흐미음 감드온 계집이 소리르르라 입
 을 버리고그침을 밧으니르르기르르함다 구라함고 또비단자
 리르르외 밧음과 관문을 노하알고아름다운 계집삼사비인
 을갈희여 두가지 밧흐로오슬만들어난 화니히고외번이
 미양직으로더부러디함여 쌍축칠식그녀지각기사의를
 음함여올마석니르르기르르음쌍축이라함더라그후세
 번이희함여버히믈밧으며가산을권물함고또한아
 들이업서 후식웃치지니라

李符



盧多遜貶朱崖李符謂趙普曰朱崖雖在海外而水土不甚惡春州雖在內地而至者無生還曷若改竄春州普不答未幾符亦坐事竄宣州上怒未已或以符語奏上即改竄春州到未一旬而卒

노다손이주의로키향간석니벽도보의게아침고여왈
 주의비록히외쳐히나슈회향정리아니고고찬주노비
 록갓가온쳐히나가는사람이슬아도라오노저어스니
 그리로고취보니미호리이다흔되도되드지아니호
 엿더니그후오리지아니호여니벽초향상외죄를어어선
 주로키향보니시더니사름이니부의도보드려호던말은
 고호니상이즉시니부의비소를고취찬주로보키시니그
 처히나러시니이런이못호여주으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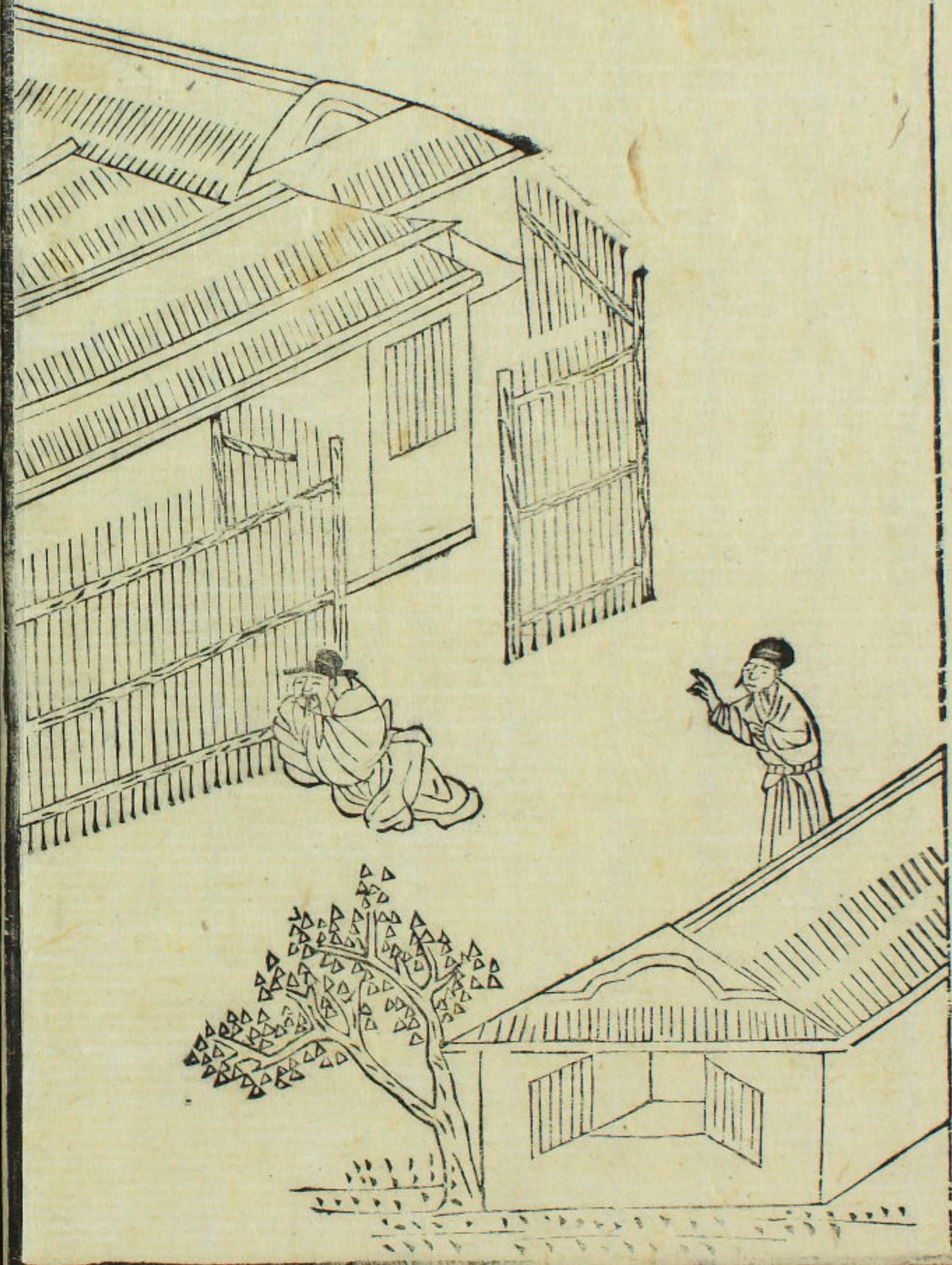
楊大年



楊大年與周翰朱昂同在禁掖其時二公已耆邁矣楊方
弱冠屢輕侮之因作語曰君莫侮我老老終畱到君昂搖
手曰莫與莫與免爲人侮後楊未艾而歿

빛적의양디년이쥬한쥬양두사름으로더부리켜쥬의
입직을시쥬한과쥬양은이미외로하고양디년은나히겨
유약관이라미양두사름의느림을업슈이년이거늘쥬
한이인흥여글을지어쥬어와르디느우리느림을어부슈이
년이지말나느림을두었다가그디를쥬리라흔디쥬안이
손적어글오디쥬지말지어다쥬지말지어다쥬지말아사름
의업슈이년이믄보지아나케흔리라흔디나그후디년이나
히삼십이못하여쥬으니라

趙師弄



韓侂胄於吳山治南園中構一村庄竹籬茅舍宛然田家
 氣像韓憇之喜甚曰撰的絕似但欠鷄鳴犬吠耳及遊他
 所聞庄中犬吠雞鳴令人視之乃府尹趙師弄所為韓大
 笑及韓敗師弄有罪死

한라취오산신희동산을다고호호론장을비치호나디
 을섬과초가집이완연이농인의집모양이라한다취
 미양그곳의놀며심히기거호여완집지은제되극히
 농가의모양호호나다만더리의우름과리죽는소리업스
 미흠이로다호더나이호호여집안호로써계명전폐
 성이나거늘사람을보내보내이는부유호도스리의소
 리호음이라한다취크게호고즐기더라밧다취핀호미
 슨릭이호호죄의죽으니라

盧穆



盧穆夜懷百金送王文正公求爲江淮發運公辭曰顧公之才不堪充此職敢以私賂廢公道乎盧慙而退終夕焚香願文正速死一夕夢神叱曰王某盡心於國汝乃欲其速死帝將罪汝乃醒汗流遍體數日卒

송나라 노무이 라는 사람이 밤의 비가 금저물으러가지고 왕문정공의게 나아가 금을드리고 강희전운수르러 하여 지라 하거늘 문정공이 사양하여 이르러 오디공의적조를 보건디이 벼슬의감당 리 못하리니 어지감히스회되 리를 밧고공스르러그르러오하니 노무이부스그리며분하여물너가 밤이맛도록향을뒹우고공중으러향하여벌되문정공으러설니죽으라츙원하더니호로밤삼의신령이부지러오디왕공이나라하리하야무이공

다함겨늘네이죄간스함뜻은니루지못함
 미도로허착함
 사름을생리니죽으라죽원함
 네죄악이갈스록증당함
 여상
 죄장초너르르죄슈리라함
 거늘놀나쳐나일신의뜻미이갈스고
 슈일이못함
 여죽으니라

行人官



道人惡報

龍西谿同年某行人一日來謀曰吾欲註門籍幾日西谿問故答曰近有湖廣差我將避之西谿曰湖廣非險遠况尊翁在堂便道一省豈不兩便行人曰吾聞吏部將選科道若承此差恐不與選吾避之則楊子山當行遂稱病註門籍不意纔數日吏部據開選行人勢不可即出楊遂得吏科行人仍前差徒撫膺恨悵而已

동서제와 동방의 사람이 시니 처스원마을 벼슬은 사람이라 일일은 그 사람이 서제를 보고 의왕의 장초병을 일과고 동안슈유허려호노라 서제언고를 무르니 답왕이 제오리치아니호여호광석히치스원구실 이잇다호니 이러므로 피코적호노라 서제왕호광이 멀며 허무호는 하아니어는 어지피코적호노고 사람이라 왕의 드르니 부의서과도 벼슬을 섰다호니 만일 이치스원은

당호면니 부과도의 참예티 못호를 가호니 니이제니 피호주나 의갈질은 양산이다호치되거시오구후의과도는 나의 차례되리라호고든여병을 일과고마을의슈유호였더니 슈일이 못호여 뜻밖과니부의서과도르니호노지라그사람은 이의병장호므로 즉시나오지 못호고이제호광길은 아직 정리 못호였는지라니 부과도의조연이양산이다호치되여서히고그사람은 도로치스원 당치되여가니호는 갖가슴을 취한 관을 섰이라 이노제구실을 남의게히루고적는 남의 벼슬 차례를 아스려호제피도로려제벼슬은 당초를 남의게보되고남의구실을 제박앗심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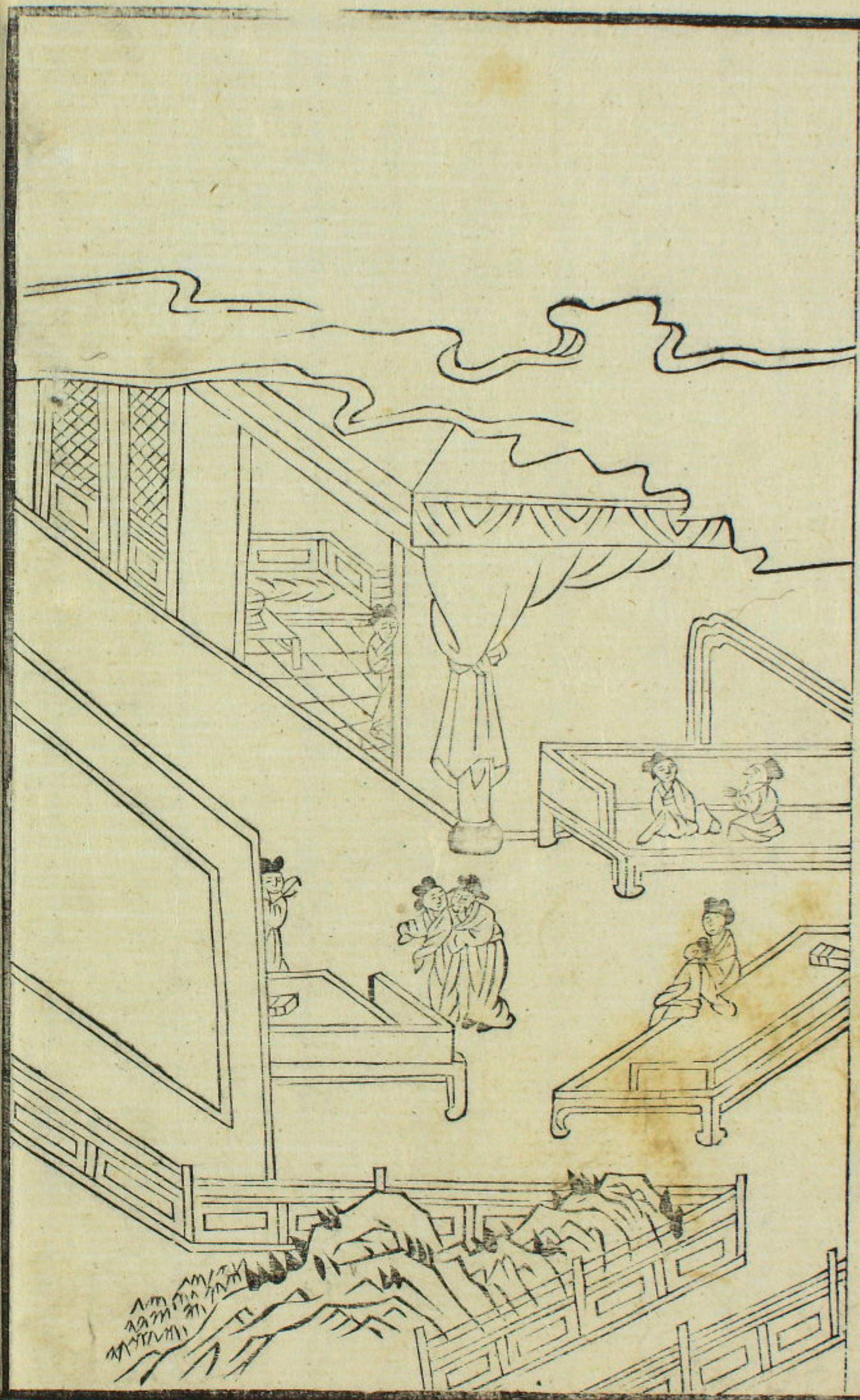
石崇



晉武帝以外國所貢火浣布為衣著之幸石崇第崇聞故
 服常服而從奴五十人皆衣火浣布以迎帝卒召滅族之
 禍

단무제석의외국사화완포르진공후니화완포라후
 는거스비단닐름후이나러으면불의너허석는고로년
 후음이화완포니지극히귀후보비라무제일노석의복을
 지어니보시고자라고적후여석송의집의거동후시니석송
 이그연고르알고쳐는스스로상하니바어던의복을니비고노
 복오십여인은모다화완포를니남하여가름맛제후니이
 러므로마스증너면죽후는화를바으니라

王黼



王黼爲相窮極富貴置大榻於寢室用金玉爲屏翡翠爲
 帳環以小榻十數擇美麗姬妾居之恣爲淫樂日夜不已
 所親或規之曰此危道也不見夫所謂飛蛾者乎飛翔燭
 上驅之不去終於焦爛必期於死聲色之害不啻膏火也
 而乃日崇不已淫慾無度後悔何及乎黼不聽未幾禍作
 身首異處

빛적의왕보라하는사람이정승이되엇실사부귀극진호요공스극
 리호여스는방의큰평상을노하구히기침호큰시금으로만든
 병풍과비취로만든장막이극히화려호며최근평상슈시좌를
 들너노코아름다운희침을만히갈히여구히이게호고방스히
 음난호여즐기기를밤낮으로크치아니호기늘친호사람이정
 계호여크오디이논위리호닐이라그디엇지비아지박등으로보지

못을 엮는다 부나 비등잔 불의 갈녀 들미 사름이 아모리 쫓츠
 도가지 아니 흥고 필경 텃와 죽기의 니르스니 형식의 사름히 흥음
 이등잔 불만 흥을 썬이 아니라 장츠 몸을 썬질 거시어 늘이 켜
 그리날 마라 즐저그치 아니 흥음유이 무한 흥니 후의 휘우
 춘들 어지 밋츠 리요 보듯지 아니 흥너니 오리지 아니 흥여 회
 니러 죄로 뵈머 리버히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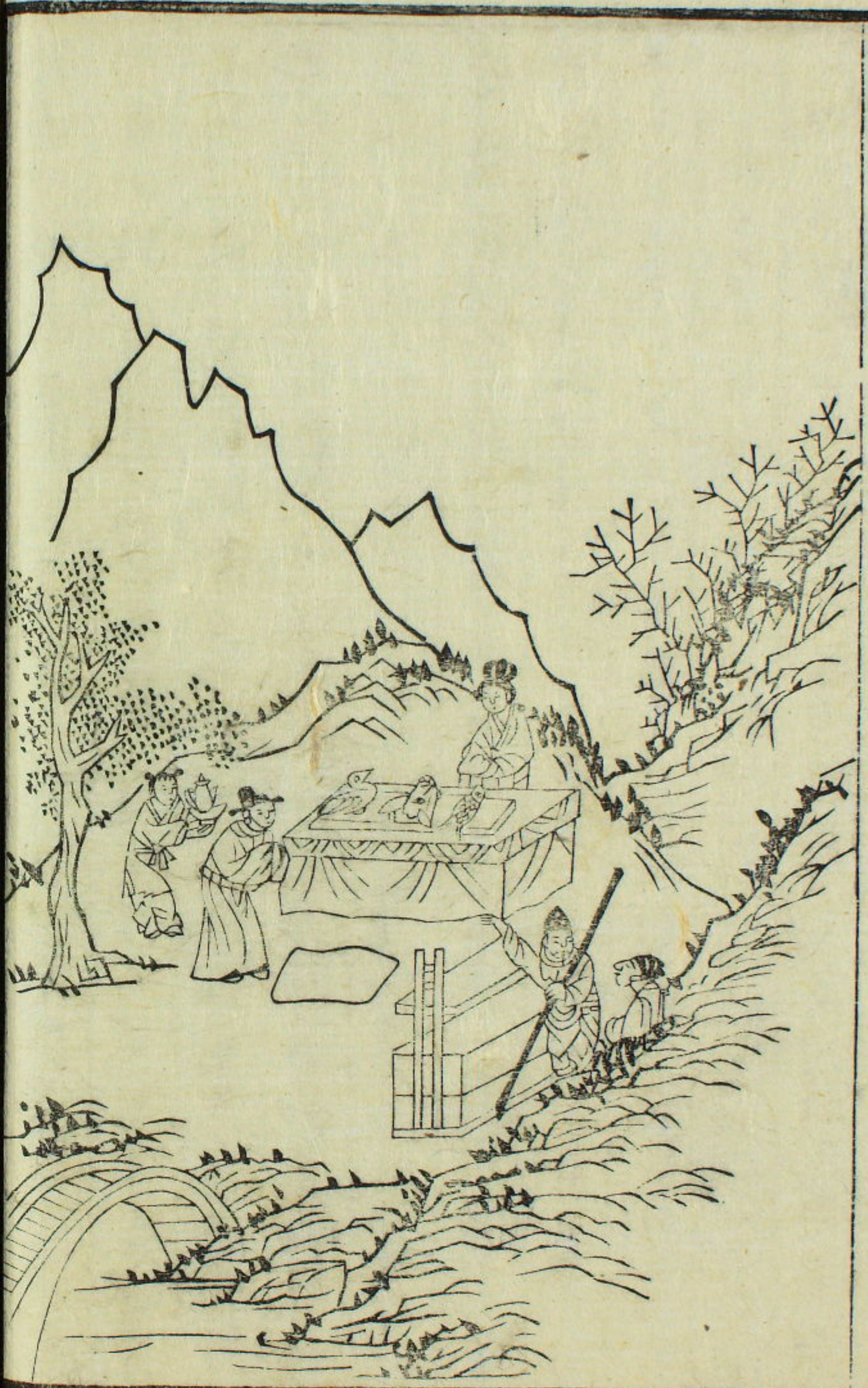
盧翠



盧鞏游太學有一神祠甚靈鞏每以前程所禱是夕夢神叱之曰子已得罪於冥可亟歸鞏曰某生平無大過惡願聞獲罪之由神曰子無他過惟父母久不葬鞏曰某尚有兄何獨受罪神曰子爲儒者當明理義子兄碌碌不足責也是年果死

넋적의 노공이라 하는 사람 이취하구의 드렸더니 이취하는 곳의 신당이 이취하구히녕히모는지라 공이 미양전 권으로 베풀기도 하더니 이날 밤 잠의 하는 신령이 부른너 취지취를 오려네 명부의 죄를 잊어 시미 장 초 큰 화를 밧은지니 쉰나 도라 가라 하거늘 공이 큰오려니 평성의 큰 허물이 없느니 취 권취 죄 잊은 연고 큰 르고 적하노라 그 신령이 큰오려네 죄는 르미 아니라 오직 너의 부모를 오려 장수 하지 아니 함이니라 하니 공이 큰오되 만일이 이날 노 베풀라 할진 되어 또 한원민하느니라 너 지부의 형이 이거늘 잊지 할 노니 죄라 하리 잇가 신령왕에게 형은 노니 하여 취망은 비아니요 너는 천비의 몸이라 맞당의 의리를 알거시니 취망을 잊지 면 하리요 하더니 그 후 오려 지 아니 하여 과연 죽으니라

孔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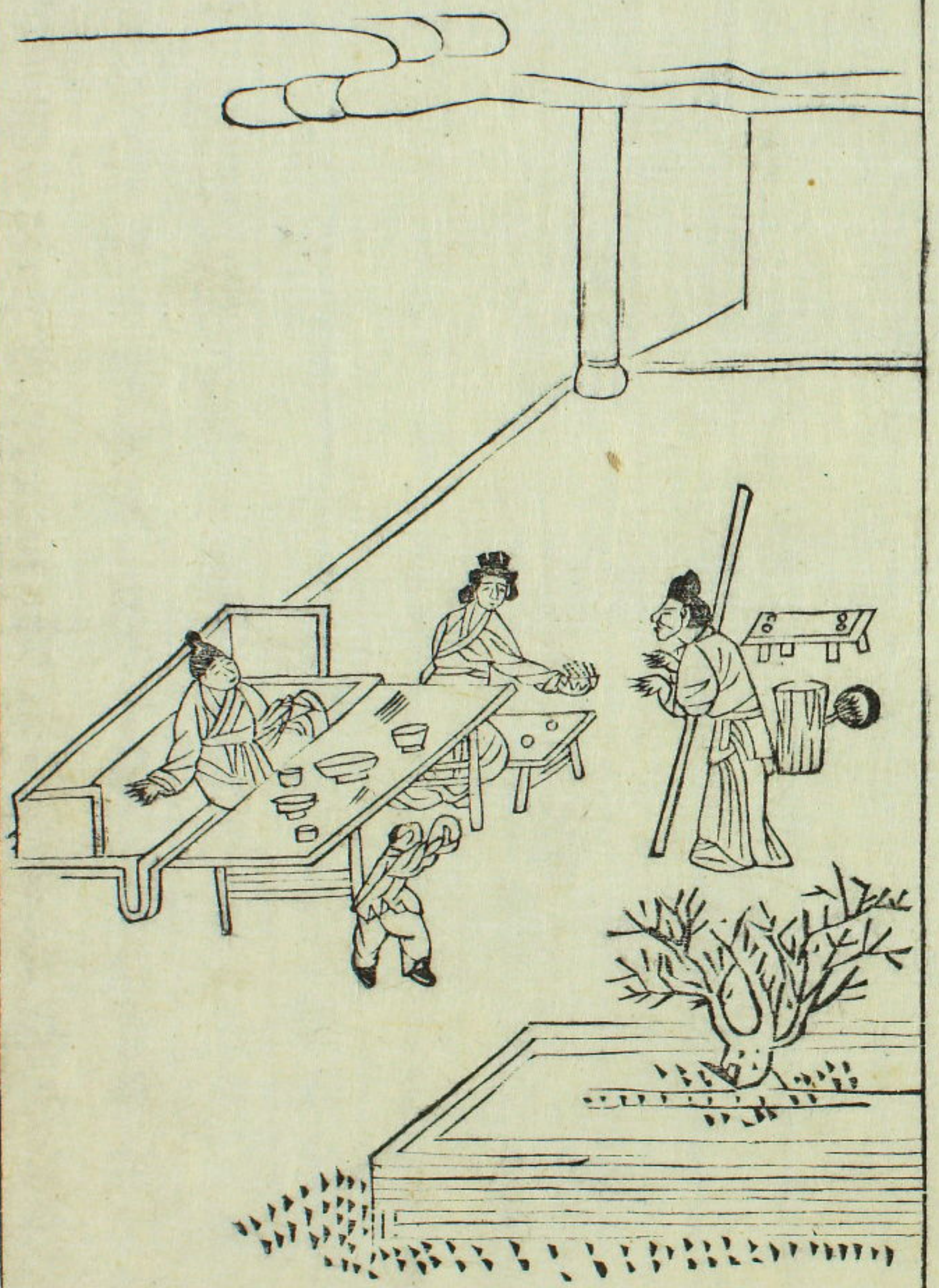


孔墳丁母憂既葬歷官至秘書丞始歸焚黃其母忽現其
 前責曰汝棄吾去盜發吾塚歲時祭享寄食二女家爲子
 當如是耶陰司本欲罪汝以警於世爲汝處官修謹姑且
 置之自此切須勤視墳塚歲設一祭以寧山神亦以安我
 也

넋적공응은이란사림이모상을당응여이의장스응
 고벼슬응여비서승은응엇더니밋도라가소분응리세
 그모친이흘연안래히잇서척응여와르네날은리브리고
 간후오리오지아니응미무덤은도적의손의과이믈당응
 고해시의제스드두살의게부치여밋은니즈식의도리밋랑
 이르응라음부의셔너르르죄주어세상사림은정계응려
 응더니네벼슬의척응여즈못근신응기로아직증지응엇

시니 이후는 모로 미삼가고도 심음여 무덤을 축신일이
 보슬피며히마다 음번식제스음여 산신을 위로하고
 또 후날을 편케 하라 하더라

倪九



靑田木竈山居民倪九者感於婦言不孝其母母衣食不
充遇事不許開口值秋禾方熟令母舂新穀烹雞治飯同
妻食畢以餘付母母憤不能下咽涕淚告天是夜颶風驟
雨有大石自山巔裂正壓倪九寢榻復破左壁而出至於
澗西其母無恙也曉村人聚觀室已空矣母繞崖泣尋止
有幼孫數血指粘於石尖而子婦莫知死所矣陳中州悽
其事因作誅逆崖記

청천모조산서히잇는벽성의예구라하느사름이이시
니그척의말의후후여구어미의게불효하니그어미의
식이중꺾을흔씩잇는지라또가중의닐이스미후그
어미분별코죽으려위력으로막잡나리구치못하
게하더라일은은츠히죽리다하하여식목식이비아호로
이은지라그어미로하하여음신공은방하져어밤을지이
고드러을슬마부척척치먹은후의남쳐지로써어미를죽
니그어미동분하하여능히먹지못하하눈물을흘녀하늘
의고하하너이밤의호연모진브람과급은비크게오너니
큰바회산은선치고나려와예구의조는방을늘너바으고
드시구은너척척바람벽을뜯코쳐현시니가희노히니그
어미호를노무스하하그아들과며느리는죽은곳을모르르
너라그후진중유란선비그날을괘히너겨글지어돌은
칭찬하나라

徐姓兄弟



龍游徐氏兄弟二人相距十餘里五日一輪養母兄貧甚而弟稍豐兄供母饘粥不給輪內尚餒二日語母曰食乏且往弟家遲當補餒母往弟門弟不納曰兄供未滿母語以兄意堅拒如初母聞飯熟乞少許充飢弟密令妻取飯甌置床覆以被母乃垂淚還未里許雷電交作有神自籬外入提飯甌擊之遂震其妻死於門夫死於室

넋적의 농유선히석가형테잇스니각거하여상계십여리라형테오일식돌녀어미를몽양할시형은심히가난하고아우는적이요부하더라일그형이어미를공양하다가죽물이너지못하여돌니는츠레의두날을쳐오지못하고어미를권하여아우의집으로보니고아우의게말을부쳐너르되이번부족하두날은이다음츠레의치

오마음여 그어미의적은아들의집의너르니그적은아
 들이드리지아니함여와라형의차례나리아직차지아니함
 다함고문을곳이닷고드리지아니함니기되비공과프미르철
 함지라도밤살느소리를듯고비러와라아모려나조음만쥬
 면쥬라창조르적이메우리라함거늘기제척로함여몸
 밤솟츠르혜혜상아리감초고이불노던함니기되이의는
 물은은을니고도라갈시문득반나를못가셔되침변덕
 이교작함며함신령이그집을바그로셔뜨여드러와그밤
 솟츠르벽너으로두드리고드여그부척를쫓츠침시함나
 함문의셔죽이고함나함집의셔죽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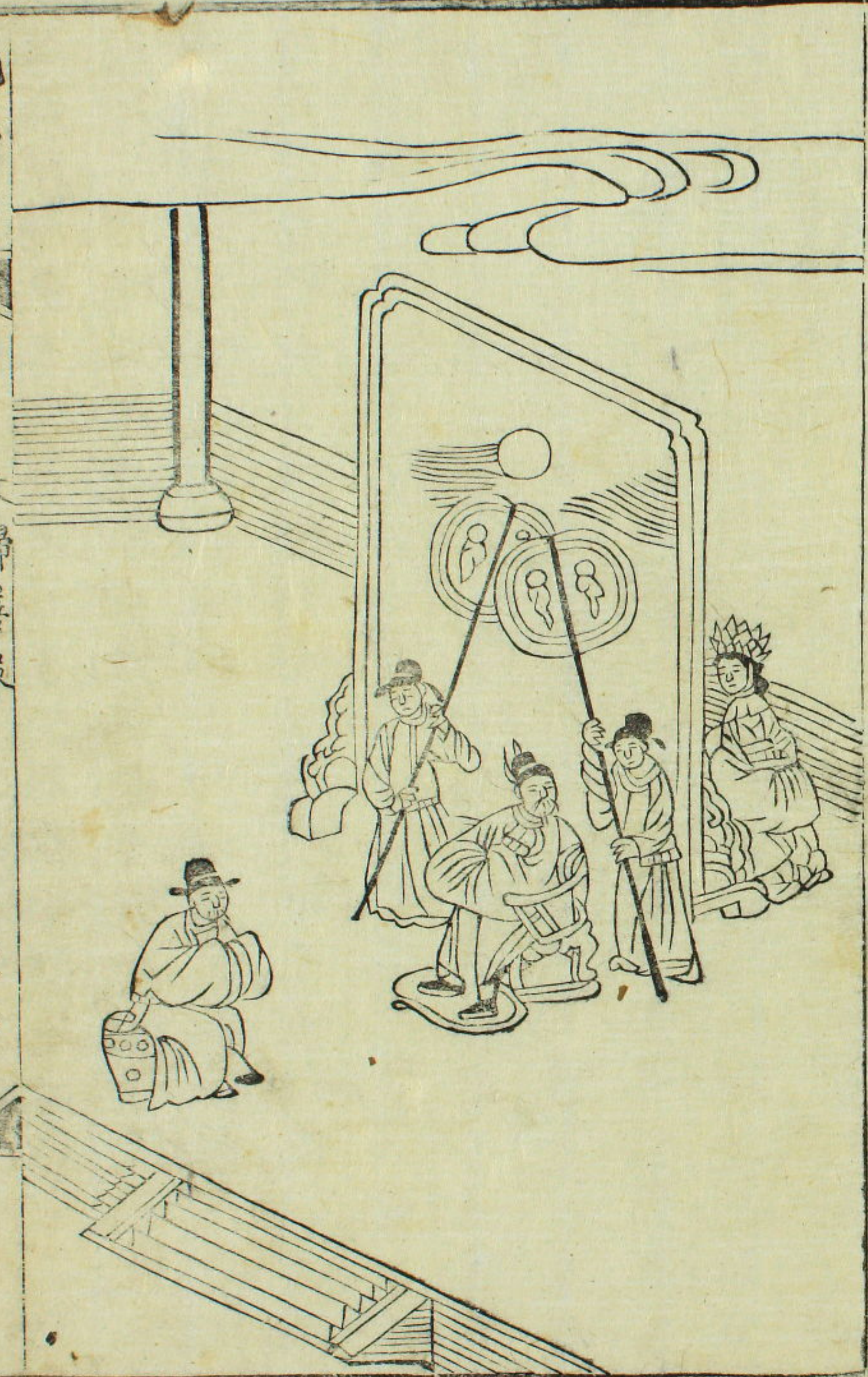
王四



宋臨川縣民王四事父不孝父不勝忿欲赴訴於官王四持錢二百趕上疾呼曰以是爲紙筆費投父懷中父行未半里雷雨大作急避人家雨止而出聞其子已震死趨視之錢乃在子脅下與肉相連及探懷中已失之矣

송나라 남천 현 왕사 아버 섬기 불 불 효는 지라 그 아버 분함 을 니 과 지 못 함 여 관 가 의 하 리 러 나 가 거 늘 왕 사 돈 두 냥 을 가 지 고 좃 초 오 며 불 너 왈 일 노 배 지 필 의 소 입 을 삼 으 라 함 더 아 비 의 품 속 의 더 지 고 가 거 늘 기 뷔 더 옥 비 분 함 여 힘 함 더 니 문 득 의 령 이 더 작 함 고 큰 비 오 는 지 라 인 가 를 초 췌 우 함 더 니 드 르 니 그 아 들 이 2 의 의 령 의 죽 었 라 함 거 늘 도 라 와 본 즉 그 돈 이 아 들 의 허 리 의 이 처 살 라 함 더 년 함 었 고 제 품 의 이 더 그 돈 은 간 더 업 더 라

宋弘



漢湖陽公主新寡光武與論朝臣微觀其意主曰宋公威
容德器羣臣莫及光武曰方且圖之後弘被引見光武令
公主坐屏風後因謂弘曰諺言貴易交富易妻人情乎弘
曰臣聞貧賤之交不可忘糟糠之妻不下堂光武顧謂公
主曰事不諧矣弘位至大司空夫婦偕老

한나라 호양공주씨로 과부되미 광무황제 공주로 더부
러 조정인물들의 논하 여 그 뜻이 논 곳으 슬며시 보려 하디
공주 올 오디 송공의 위엄과 용모와 덕스러 온그르 시 모든
신하의 당하르 지 업다 하 니 광워클은 사디 니 장 초도 모하
리라 하 시고 그 후의 송홍을 불너 이디시 하 실서 공주르 명
하 여 병풍 뒤 희안 처드르 라 하 시고 인하 여 홍드 러 닐너
클 오디 상말의 날 녀 시 되 귀 호미 벼은 바고 2 부 호미 처
를 밧곤 다 하 니 사람 의 상정 이 2 러 하 라 하 신 리 홍 이 디
왕 신 은 듯 조 오 니 빈 천 의 벼 은 가 히 잇 지 못 하 고 조강 의
처 는 당 의 나 리 지 아 니 하 라 하 더 이 다 하 니 광 워 그 뜻 을 알
으 시고 공주 르 도 라 보 아 마 르 사 리 날 이 되 지 못 하 엇 라 하
시 더 라 그 후 홍 의 벼 슬 이 되 스 공 의 나 르 고 부 뷔 히 로 하 니
라

劉庭式



劉庭式既定婚入太學越五年登第及歸前女已瞽庭式
 擇日成禮女家不可曰廢人不堪奉箕箒庭式曰喪目於
 定婚之後義何可棄竟娶之夫婦相敬如賓生二子及式
 為倅高密女以疾卒式哀哭不已時東坡為太守慰之因
 曰哀生於愛愛生於色子娶瞽女愛從何生式曰吾知妻
 必哭妻不知有目無目緣色生愛色衰愛絕非所敢聞東
 坡撫其背曰真丈夫也所生二子皆登上第

빛력의 누정식이이란사람이혼인을정하고퇴후의글이
 공부하여오년만의 급제하고로오니그녀저변은어페
 명은여사노지라정식이이러기일하여성혼하려하되그녀
 의집의서폐인이라하여불감함을닐크고혼인을스양
 하거늘정식이이글오되눈을상함이정혼하후라엇지

感應篇

日

夫婦善報

二二

가히 바라오호고 맛춤이 취하니 부뵈쳐로 공경하기를
 손님 못치워 접하고 두아 줄을 나하사더라 그후 경식이 고
 밑에서 희원이 되되 그녀적 병들어 죽은지라 경식이 슬피
 울며 마지아나 하더니 이적 소동패 위문하고 인하여 마로
 리 무릿슬 푸른 사랑으로 조초나고 사랑은 식으로 조초나
 는 바라 그뒤 노고 언더 크를 취하였시니 사랑이 어되 조초나
 노고 죄식이 이슬 오되 니다 만 처의 죽음으로 처를 위하 여 슬
 허 할 뿐이요 그눈의 유 무는 알 비아 니라 또 흥은 식으로 조초나
 랑이 날진 되 식이 쇠 하 면 사랑이 쓴 칠 지니 이런 나르니 감
 히 듯지 못함을 비로 소이다 하니 동패 그등을 어루 만 처 왈 진
 짓 뒤 장부로 다 하더라 그후 두아 들이 라 제 일 노 등 라 하
 니라

滿少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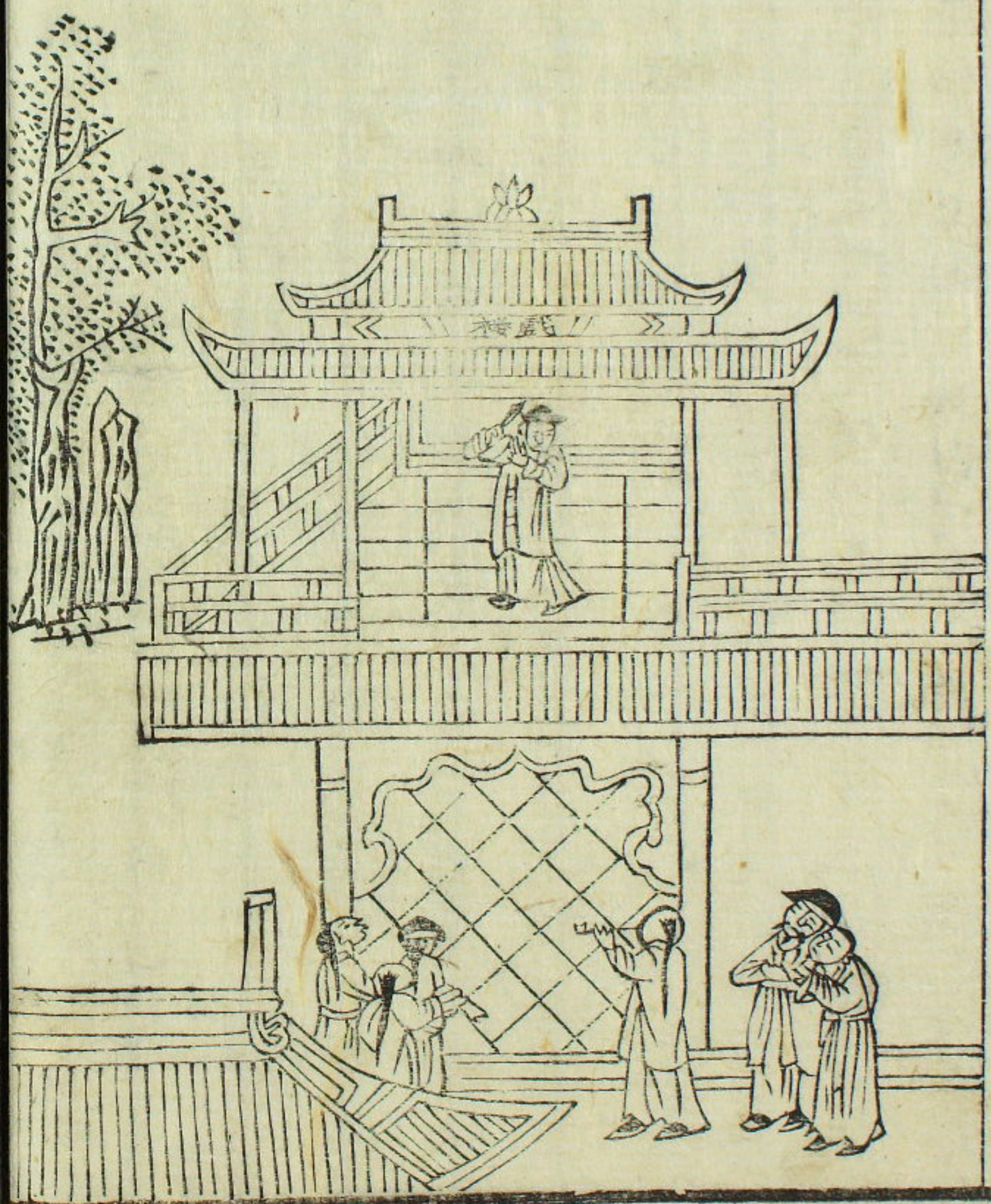


滿少卿淮南望族落魄遠遊飢餓旅舍鄰叟焦大郎憐而
飯之生感詣謝自是杯酒親昵遂通其室女事露大郎叱
之雖悔無及遂贅爲壻供其誦讀夫婦相得甚歡居二年
登第歸拜酬謝盡禮及調官謂妻曰我得官便迎翁與汝
既選東海尉便道過家其叔強爲娶朱從簡大夫女女既
美好裝奩更厚遂棄焦氏以門戶衰微且亂始也絕不相
聞者二十餘年累官鴻臚卿出知晉州散步後堂見焦氏
自右舍出泣曰一別廿年略不垂念真忍人也生以實告
焦曰今吾父已死兄弟不肖無所依棲千里相投汝既有
佳偶吾願充側室前事不必較也言畢長慟生以語朱氏
朱欣然迎歸越宿生微醉詣其室寢明日門不啓呼之不
應破門而入生已死於地焦氏與青衣皆不見是夕朱夢

焦曰滿生受我家厚恩負心至此吾飲恨而死父亦抱怨
而亡今申訴幽府方獲報怨朱驚寤護喪南歸
만소경이라 하느사름은 회람씩 갑죽이니 일즈기락하
여말니 단닐서 호구할도리 업는지라 일은 쥬리미심하
여술막의 늑고니지 못하거늘 나우지 짐늘그니 초덕랑이보
고불상이니 여밤을가라 먹엇더니 성이 감적하야나
아가사레하고드드여친밀이 단니 일하야되랑의녀아로
더부러스통하니 되랑이노하야유지즈나흔일어버셔드드여
네를닐외스회를삼으니 부뵈심히상드흔지라 일노초초
글공부함을지극히권면하야이에머문지이년후의과거
의나아가진스급레하고도라와 초옹의덕을감샤하며그
최드러닐니알니이레상경하야반드시벼슬을잇을거시

니 맛당이 악장과 그 덕을 마자 가리라 하더니 이되 동희의
 를 하야 고을노 갈시 길 이적의 집을 지는지라 그 아초비
 강권하여 부주종간의 슬과 혼인하니 그녀적이며 아를
 람고 또 장이 만흔지라 드드며 초시를 바라니 그 문희의 미
 함을 혐의하고 또 최음 만나미네 아니라 하야 인하여
 코쳐로 통치 아니 하니 지슈십년 이 되엿더라 그 후 벼슬을
 도 아홍노 정을 지니고 또 진주척슈되여 이의도 임하고 일
 은 후량의 서건날더니 초시우편집으로 되나 아오더을
 어왈 한번 나 별하야 연지슈십년의 조곰도 생각함이 어
 니진즈모진 사름이로라 하거늘 성이 실스로 뵈고 하니 초시
 왈 이제 나의 부위의 죽고형에 불초하야 의지늘 곳
 업는지라 천나를 발쳐하야 이의 투학 하엿더니 그 덕이
 아름라 온 비필이 이노지라 원전되머물너 측실의 흉슈고 전스
 는고 제치아니라 하야 말을 맛고 길 이슬허하니 성이 주시드려
 고연고를 나른치 주시흔 연이 초시를 마자 도라와서더니 슈일후
 성이 술을 취하고 초시의 침실의 드러가자더니 날이 늦도 문
 을 너지아니하고 불너도 응치아니노지라 집사름이 고이히
 여문을 췌치고드러가보니 성이 의 죽엇고 초시와 초환은
 간뒤 업노지라 크게 놀나더니 이날 밤의 주시함의 초시나
 르러 왈 만성이 나의 집은 해를 후이 바고 이러트비 반하
 여 날노 하야 곱한을 먹음어 죽게하고 나의 부친이 또
 원을 품어 도라가노지라 이제 명부의 송수 하야 원을
 감 호노라 하더라

李司鑑



康熙五年永年縣舉人李司鑑首勒死妻王氏又打死妻
 李氏次唬死妻張氏自認抵償監候一日聽讞過市中忽
 奪屠刀自詣城隍廟戲樓上口稱城隍罪罰你不該聽信
 鄉黨是非令割去耳朶即自割其兩耳擲於樓下又責罰
 你不該詐人錢財令去其指即去其左手二指擲於樓下
 又責罰你不該奸淫人婦女令割去腎囊即割擲於樓下
 當即昏迷家人擡回事見邸報

강희오년의영년고을에사는선비니스감이란자는
 본성이이흥함음고교스하여일즉삼척르스신히음
 논지라일은적제로지는가더니호를연이백경의칸을
 아스가지고성화요누우희을나스스로닐으리성화
 묘신경이너른죄주느니네어이남의그른말을미어

고지듯는고죄가히귀를버히리라
 고제귀를버혀
 누아리로느리치고또올오디네어이사름의저물을간
 스히속여취할라그죄가히손을버히리라
 고죄편손
 가락등을버혀누아리느리치고또올오디네어이남의
 부녀르음나흐고죄가히신낭을버히리라
 고
 죄신낭을버혀누하의느리치고인향여흔도괴칠
 니이날이조보의오르니라

校尉鄰婦



成進用

四

夫婦惡報

三十三

洪武中京師一校尉與鄰婦通一日校瞰其夫侵晨出直
入門登床夫忽復歸校伏床下其夫曰吾見天寒恐爾冷
回來爲爾加被耳夫去校念曰彼愛妻如此何忍負之與
我淫耶以佩刀殺婦而出曉有賣菜翁入門鄰人執以聞
官誣服成獄將棄市校登場大呼曰某妻是我所殺監斬
者奏聞其故校曰婦頗美某實與通因聞其夫語某恨此
婦負夫一時義氣激發遂殺之某不敢欺願賜某死太祖
曰殺一不義生一無罪可嘉也並釋之

홍무년간의경소의한장교이척니웃계집은스통
한엇더니일은그지아비는감을보고가마나드러가상
의오르더니이척나라이척버리지아나한엇는지라그
치아비나간지오리지아나한에도로드러오거든장괴
놀나상아리참엇더니그지아비척드러날너와라니나
가다가날이치우물보고네넉흔거시얼우므로베치워
할가넘녀한에도로와노라하고이부른으드리여터
엎허주고가거든장괴이말은드르고싱각한되제지아
비그척르스랑음이라트지극한거든그뜻은저브리
고날은스통하니의업은제지비이로다하고드드여차던
관을세여계집을죽이고도라가니라날이브리은의
동니의나물과늘늘그니그집의드러가더니웃사름
이잡아살인한엇다한여고관하니스스로발며이다
못한여이미스부하니라장춧저의너버히라한
시그장괴드러크게웨여와라계지죽인스니라
한거든감참과이그연고를무르니장괴다한여

오디적 제집이즈 못아름답기로니 권근 노더부러스듯
 흥엇더니 그날 밤의 그지아비의 말으르듯고 그제집의
 그지아비적브리물분노흥고인시의 과적발흥여적
 엇스오니원컨디날노꺼되 슬흥고무죄흥사름은상
 히오지말으소취흥니 샹이드르시고글으샤덕흥브리의
 지인은죽이고흥무죄흥사름을슬니가장아람
 님다흥시고다노흥시니라

鄂州藥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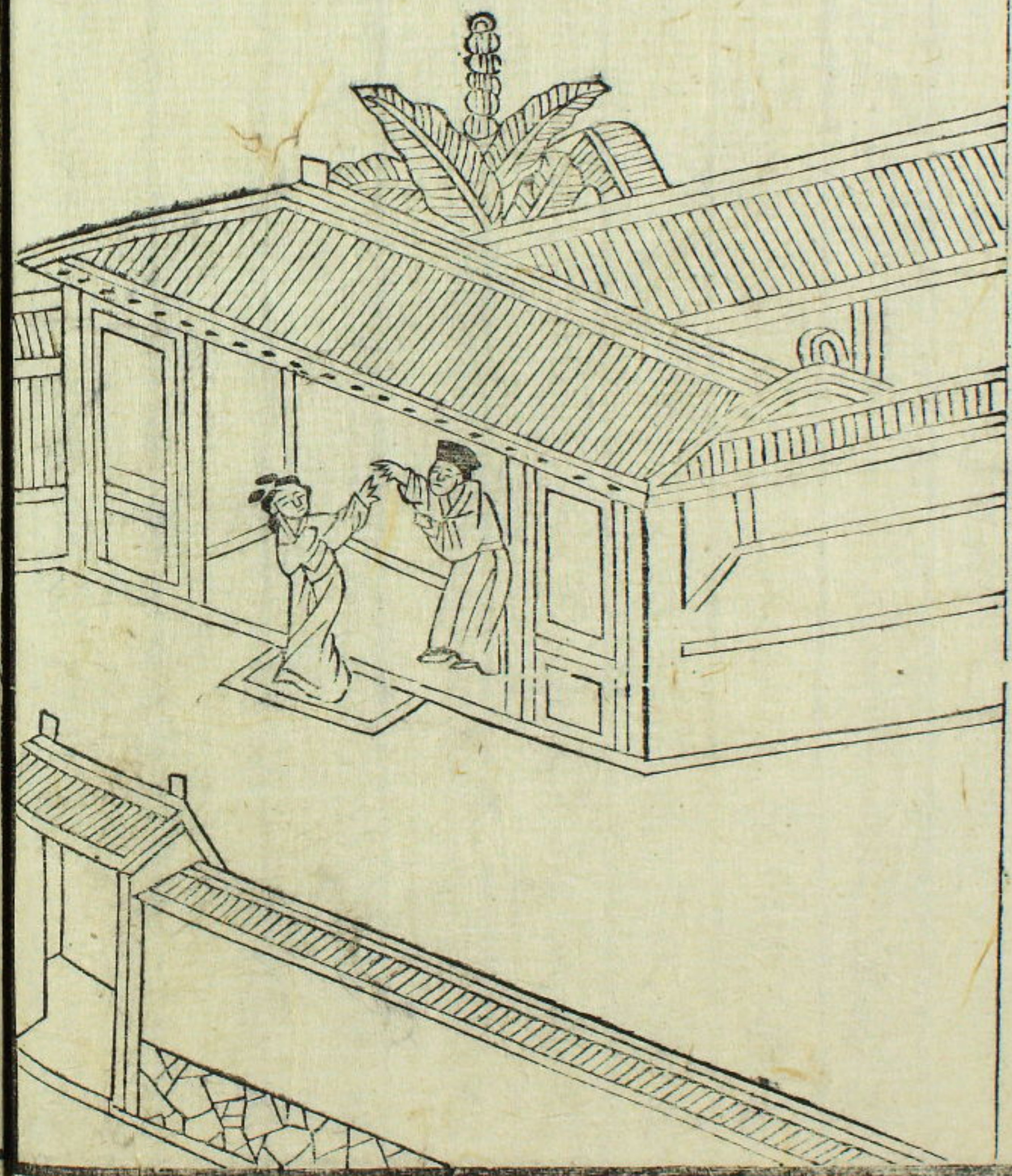


夢人寓鄂州慕孀婦奩索給以無妻娶之婦其妻妬悍佯
與厚密取斷腸草置酒中飲孀婦以死死十七年而其入
復娶一妾寵之妻妬如故有道士至其家指曰冤家合一
處矣人不解其言居未幾妾亦以斷腸草漬入酒中勸妻
飲夫不察亦飲之夫婦皆死妾與一婢焚其居挈千金而
逃道士乃言妾乃孀婦後身也年正十七

넛적의기뜨사름이악쥬뜨히우거ㅎ여그것집과부의
지물이이시물남ㅎ고뜨뜨식은스모ㅎ여속여니로되
안히업다ㅎ고취ㅎ여도라운쥬그취잇쥬뚜괴ㅎ고스
오나와것츠로후디ㅎ는취ㅎ고안ㅎ로칼은포뎀은
지라일은은그취가마니단장초라ㅎ는독약은술의
포글어그제집은먹여죽여서더니그후십칠년만의

그지아비죽시ㅎ침은취ㅎ여심히스라ㅎ니그취뜨뚜
괴ㅎ기르른마지아니ㅎ거본ㅎ는도식집의니러보고날
너와르윈쥬끼리ㅎ집의모혔다ㅎ니사름이그뜻을
아지못ㅎ더니오리지아니ㅎ여그취반이뜨ㅎ란장초
르른술의너허그취르른취ㅎ여먹이니그지아비독약
인줄아지못ㅎ고뜨ㅎ먹으미부채일시의죽은지
라그취반이의그집은불지르고취글가산은거두어
가지고도망ㅎ여가니라도석그제야말ㅎ여르온오리이
는그취음어덧은과부의후신이라그나히취ㅎ
십칠세니과부의죽던히의나미러라

厲氏



南宋厲氏餘杭大族女嫁四明曹秀才與夫不相得化儻
 而歸再適曹詠詠時為武弁不數年以秦檜姻黨易文階
 驟擢至徽猷閣出守鄞元夕張燈州治合樂宴飲曹秀才
 攜家來觀見厲氏服用精麗左右供侍備極尊嚴謂其母
 曰渠合在此中居享富貴吾家豈能留數息久之詠日益
 顯為戶部侍郎秦檜死詠貶新州亦死厲氏領二子取喪
 歸二子不肖家貧日甚至於析乞朝夕不給有姻親趙德
 憐其孤老養於四明厲氏間出過故夫曹秀才家門庭不
 改花竹蕃茂嘆曰我當日能自安於此豈有今日因泣數
 行不止

남송씨녀시느여항대족이라그집녀저스명화조
 슈적의게스집갓더니그지아비로더부러불하함여보

리고도라가즉시조영의게의집가니조영은본근이
무변이라진회의친척되므로형체를힘입어
문과재제를받고아시형하니스레승락하여희유
각비술노근주를직히게하니이척상위인가권이라
관가의큰잔치를비설고종야를관등하여
즐기논지라이척조슈지가권으로더부러곳보더니
녀시의복을화려히하고관장을성히하며좌우의
시위흔지무슈하여극히존귀하고어모중흔지라조
슈지고모친을향하여왈져녀시저이런곳의잇쳐
부귀를누림사름이라엇지즐겨우리집의머문
니오하고관시슴을마지아니하더라이척조영이
날노현갈하하여호부시라고하어더니미진회
죽은민영이또한귀향가죽은지라녀시두아들드리고치
상하여도라운후두아들이불초하고집이침가난하
기심하여비어머기의니니조석이능히먹지못하리라
연이흔친척도덕이라하노사름이잇쳐그리고슈리문
불상이너져마즈도라와스명씩히슬더니녀시마초아네스
지아비조슈지의집을지내세그문정어정결하고꽃과
디슈풀이무성하하여연이네우흔지라관시하어큰
오더니랑년의이집의안거하어엇던들어지오노날
이지정의니르리오하고인하어는물리오모를마져
아니하더라

蕭修撰



蕭修撰與成弟光祿公與潔甚相友愛年五十猶同爨所
 營悉出公不以煩光祿諸子婚畢乃為光祿繕第宅舉公
 業均與之光祿謂兄子凡六而已子止二不欲使二人均
 六人之業辭不受公曰先君之愛若猶我也我知弟與我
 一體不知其他讓而弗浚請於其母太夫人母命十以四
 與光祿乃止後二公俱陟顯仕子孫義讓不衰

소슈찬의이름은여성이니그아우과누공여결노더부
 러극히우의하녀나히오십이넘도록은집의거하나일
 용지물을공이다스스로랑하고과누의게이우치아니하
 더니여러즈너를필흔후과누공은의하여접은세
 우고가산은가적분반하여과누은주니과누이큰
 오디형은누즈르두고나니이즈뉘이라어지두사르르

의세간이여섯사람의세간과갓치흥리오흥고스양
 흥여박지아니흥니슈찬공이큰오뒤우리쳐근의너
 를스랑흥시미날과호식나나는나의아우가날노더
 부러호흥즐만알고그나마는아지못흥노라흥여쳐로
 스양흥고절판치못흥여티부인괴형흥니티부인이
 명흥여십분의스로써과노음로쥬게흥니라그후의공
 의형테모다현달흥고스손이창성흥여점양지풍이
 쇠리아니흥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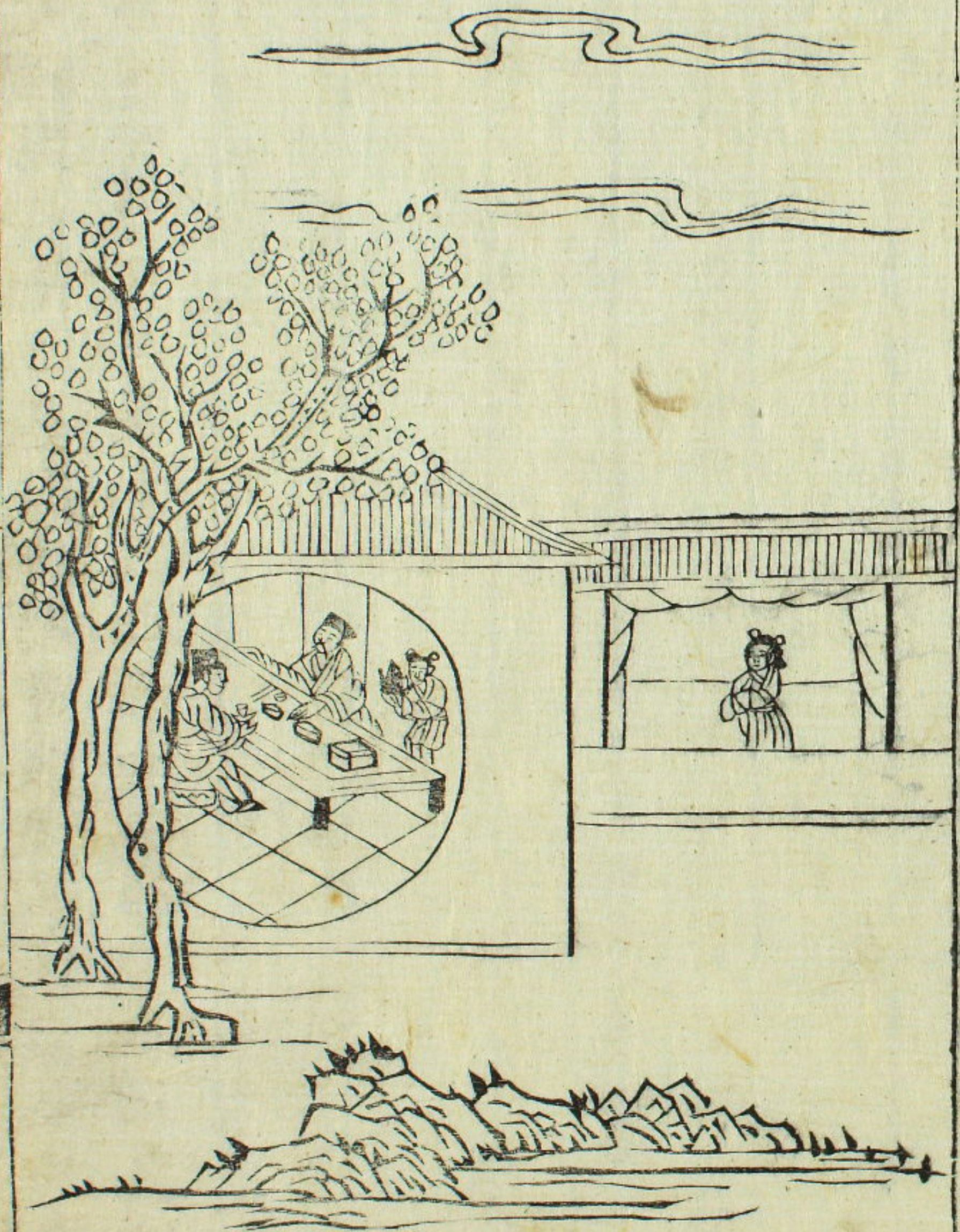
元德秀



元德秀貧時其兄早亡有遺孤期月其嫂又喪無乳哺之
德秀晝夜哀號抱其兄子卽以己乳含之涉旬日而乳遂
有汁兒得長大

원덕슈라 호는 사름이 일즉 가난 호더니 그 형이 잇셔
죽고 오리지 아니 호여 형이 죽은 지라 어린 조그
잇스니 컷먹이 리어 보치 장초 주려 죽게 되엇거늘 덕슈
불상이 녀여 그 아희를 안고 주야로 슬피 울며 리려
살나더니 십일이 되미져 시나는 지라 일노 뷔아희 장
성 호니라

趙彥霄



趙彥霄兄彥雲好遊生業廢半彥霄諫不聽遂求分產五
年而兄費盡除夕霄置酒語兄曰弟初無分釁意以兄不
節特爲兄守先業之半亦足以供朝夕請歸仍主家政卽
取分券焚之夏出已蓄以償兄債次年霄與長子俱登鄉
薦

도언쇼란사름이형언우으로더부러동거하더니형이
오이바하긔르르도하하여싱엄을권폐하거늘언희간
음되듯지아니하느니라드드여가산은난화강거하
여스더니오년이되미형의가산이다지하느니라일
은죄석음다음여언희술을장만하고형테마시더니
형은
러말하여글오뒤소테본되체간난하므음이어바
시되다만형이저물을앗가지아니하시미드르별이
형은
형은의하여그반은직희엇스오니또하속히의식이
년하느니라형은더형은도로가지고절용하여가스
르니
루미맛당하이다하고분직하문서를불의술고노스
취은
취은니여형의비를잡호더니명년의언희맛아들
노더부러하가지로향천하니라

鄭昭先之祖



宋鄭昭先之祖長樂人弟嘗殺人抵死祖憫然曰弟未有子吾當代之自首於官竟死囹中弟出不報兄德反凌孤寡其子乃攜母賣酒嶺上母死遇一異人指山下地曰白羊眠處鷓鴣啼此貴穴也五世出宰相其子覓至一處果值羊起鷓鴣忽鳴因停其柩天大雨湧沙擁棺果生孫昭先官至平章

송나라 석의 평소 원의 조부는 장남이 사름이라 그 아우이 쇠살인하고 뒤살은 기의 나르니 소원의 조벽인 망이 너여 왈 아의 나히어리고 또 죽이 업스니 너 맛당 이덕신하리라 하고 인하 여 스스로 관가의 나아가 맛침너 우중의 죽으니라 그 아의 형의 덕을 갑지아 나하고 도로 현어린 아 들과 형을 슈르리 구박하니 그 아히어미를 다리고

산의 올라가길가의 처소를 팔아 연명하더니 기뻐
 죽은지라 후이인을 만나 마르쳐와 같이 산아리현
 양이누엇고자고 시우는곳이곳이후현이 나오세르
 승이느리라 후거늘기적느려가 그곳은 초초보나
 과연 현야이러느며자고 시우는지라 인후여녕구르
 슈운후여 그곳의머물엇더니 후연이 급후배부드
 시오며 후이소스올나 관을더히무덤을닐웠느
 지라 그후 손조석은나흐니 벼슬이평장사의
 나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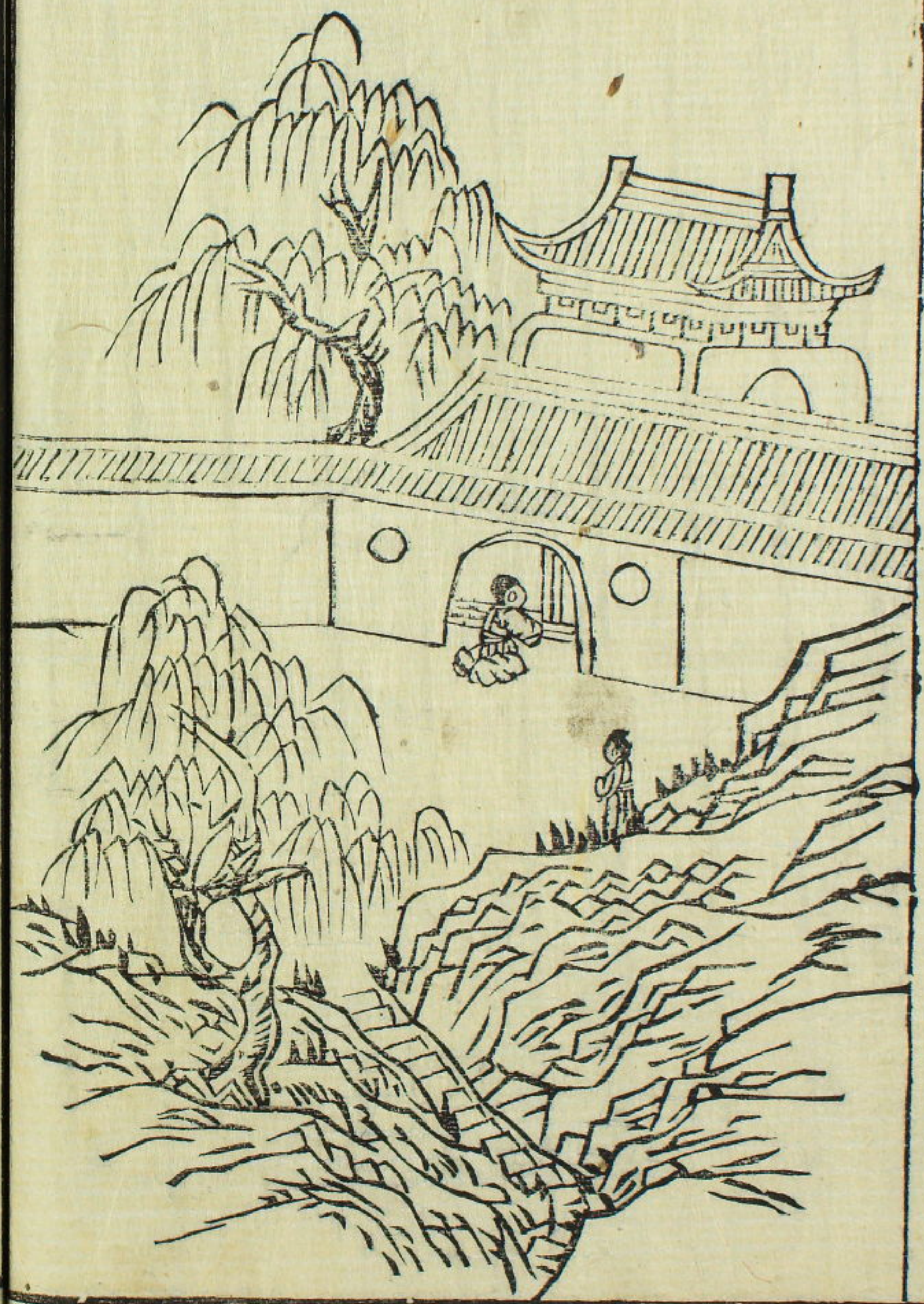
劉君祥



信州劉君祥病將死一子幼謂弟君祺曰我死子幼弟爲我扶植此子成立我在地下波不忘報君祥率君祺設計逐兄子盡得其產後五年其友張善祥遇君祥於塗憂容可掬善祥問之答曰吾子爲弟所害有書煩爲寄去戎勿復然善祥至家始悟其死以書付之君祺不信一日宴客忽大呼曰君祥來也頓嘔惡血而死

넷적의신쥬석히쥬군상이라함사람이잇시니병들어장
츠죽을세그아우군귀드러닐니와닐죽고아들이어리니
네이아히르보호호여성취케함면니지하의잇서적리
란코은혜르감흐리라함고군상이죽으니군귀몹을
무음은니여형의아드름을뜻츠니치고그가산을라가지
니라그후오년만의그벗장선상이라함은사람이
길의서군상을 만나니근심함는빛치어물리가드름
지라선상이그죽은줄을보고나아가고어고르무르니
군상이되와닐아들이니아우의게하함비되여시니형
컨되니아우를경계함여드스그러아니케함고또니클
을천하라함거를선상이그를가지고라와비로소죽은
줄알고이상이너여그말리로글을천하니군귀밋지아
니함더라일은키을모하자치함서군귀호르연크게
소리함여와닐군상이와사라함고어바더지며되르노함고죽
으니라

陳祈



陳祈有幼弟三人慮其壯而均分田產乃先取田私典于厚友毛烈止以現在產均分然後以錢贖所當田烈知其故受錢畢竟不與券祈訟於縣官吏受賄據券斷田歸烈祈飲恨訴之東嶽數日祈與烈皆死共審王前列惟持券為證王指其心曰券何足憑止憑此心耳烈乃伏罪王曰縣官聽訟不公已黜其官吏受賄者火焚削壽祈以兄剋弟亦減祿算釋回甦後詢吏果被焚官竟左遷祈未幾死

其積의진과라하느사름이이시나가산이가장부요호지라어리아우삼인으로더부러호가지로거호더나진과혜오디세아의장성호면반드시가산으로곳치난호리라호고간호판호음음은너여문적도호권장문서로써사호히정다온친구모려의계적당호고그

나문가산은가적대기식난호니라그후진과돈은가적
 천냥은천장을무르시모령이그후천을알고무
 이녀여돈을바스은후문천으로주지아니하니진과
 관가의송스형리시아적니모령의회뢰를바스과관
 가의알소형여취결호되종문천시히이라형여진
 과르지우고그천당문석로써모령을주게하니진과
 부는형은니과지못형여동약묘의나가원동음을
 하로더니두어남이지나미진과와모령이형의죽어
 왕부압희송스형리시형리오직문석를가적징침
 을습느니라왕이그모음은마르취왕문천이엇지
 죽히빙게되리오다만이모음이빙게될지라하니형
 이의주복형느니라왕아또취결형여왕고은관원

이되여송스결단은공번되지아니케형엇시니이의
 그버슬은여이고그아천은회뢰를바아송스르르
 하니부원은노하집은려우고또형은죽슈형게형며진과
 는형이되여아우를속엇시니또형은슈와복은가모
 리라형너두사름이회신형여슈말은닐은고사
 림으로람지하니과연고을아천은회저를만나가산
 이되평고과원은마스침니버슬이혀러졌다형더라
 오리지아니형여진과또형죽으니라

范堯夫



范文正公常遣子堯夫姑蘇取麥舟次丹陽見故人石曼卿以三喪未葬不得歸盡以麥五百石付之既歸未及言文正曰江東曾見故人否堯夫曰石曼卿為三喪未葬留滯丹陽文正曰何不以麥舟付之堯夫曰付之矣文正聞而大喜

범문정공이그아들요부로고소하히보너여보리큰슈운
 하여을시그보리실은비란양싹히너르러저혀는지라
 및침친구석만경이러만나보니만경이친상을큰량음
 여장스치못함으로도라가지아니함여거늘요빅그보리
 오빅거쉬은모도주어장스큰리너라함고이의도라와
 공씨되고미쳐그늘은고리못함여씨공이무려마르노
 디네강동의너르러일즉고인을보앗나못보앗

나하니요뵈되되와큰석만경이삼상을당하여장스
 치못하고단양의누최하엇디이라하니공이큰오티
 엇지보리비로써주지아니하하하노요뵈되와큰이의
 주엇노이라하니공이드르고크게깃거하더라

京三郎



咸善齋
 朋友善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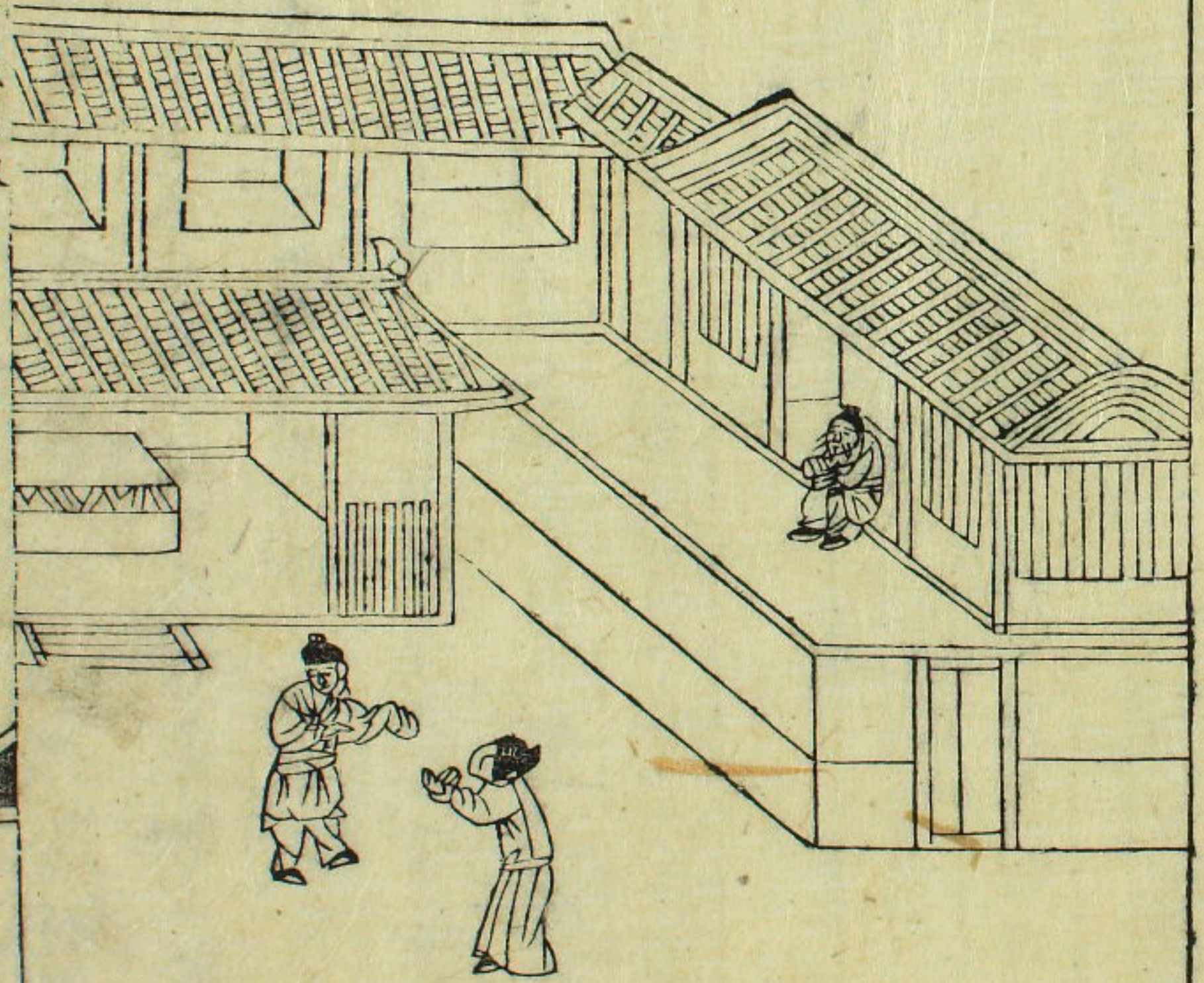
京三郎名德爲人忠信不欺友人病篤慮其子不肖密以千金付之曰我死此子必蕩廢無餘俟其將餓死時然後與之後其子果如父言窮苦至極三郎始召而詰曰爾父有產之家何以至此其子慚而不答三郎曰我有微物惠汝恐汝又費於歌酒也其子指天誓曰若果負君當投以死三郎卽取其父所遺千金與之封記如舊其子泣曰我父死時但云善事京公不意今日獲此足徵死生不變之德也其子改過修善節儉自守三郎三子長仲遠仕至宰相

경삼낭이라 함은 사람의 이름은 덕이니 위인이 충직함 여평성의 믿음은 속이지 아니 함 더니 그친 함버지 이외 병이 위중함 여죽기의 나르니 그아 들의 불초함은

근심함여가만이 천금으로 배삼낭의게 맛지고 부락함여와 날의 죽은 후의 이아 들이 반죽사 가산은 다 피함 지니 맛당이 위급함은 설림기 두려 일노 깨 죽어 살게 함라 함여스더니 그후그아 들이 과연 그아 비말과 호희여 거의 끝머죽게 되여는 지라 삼낭이 비로소 불너 무려 마로 되네 부친의 가산이 저 못부요 함겨 놀엇지 되려 뜻되 엿노고 함나기 저 부스그려 라 단지 못함겨 놀삼낭이 가로되 기계약간 존이 이외 너를 구재 함고 적함나 네 조승과 노리의 외이대 함여 허비함를 가져 허함노라 기저 하 놀을 가르쳐 밍외 함여와 같만 이 존공의 말 솜을 적보 리고 즉 시표심치 아니 함면 맛당야 하 놀이 죽이 시리 라 함나 삼낭이 이의 기부의 맛척스런 천금을 되여 기저 르니 주니 그보 함은

거시그위로잇노지라기제이를보고을어와르우리부친
 이니묘종의니르시기를경공을잘섬기라후시러니분
 의에이닐이잇스오니족하스성의변치아니후는러은
 알니로라후고드며허물을고치고힘실을갓가스
 로숨가고검박후여능히가산을직히오고삼남의
 아들의장스중원이벼슬후여직상의니르니라

漳郡丁姓



漳郡丁姓遊燕遇一壯士結爲死友未幾壯士盜板繫獄
謂丁曰我有五百金藏某處君取來營救我死則葬我餘
金任君取之丁賄獄吏斃之獄利其金越三年丁自燕歸
舟中忽自叫我是某壯士大罵丁姓並述爲所害舟人求
宥鬼曰唯唯當至其家丁遂甦抵家三日大叫仍述前語
取鎚自落齒家人奪之取刀自傷曾又奪之則以指自按
目睛出血流須臾死

장군씨의 경. 가 사람이 이시니 이리 죽 연 나라의 드러 가늘
세 혼 장수를 만나 사심. 지. 두로 소 괴 었더니 오리지 아나
하여 그 장. 시로 정. 의 게 냐로 여 우. 의 가 치 인 지 라 됴. 가 드
러 날 너 큰 오 리 너 일 죽 오 빈. 금. 을 아 모 데 감 초 앓 시
니 청. 권. 뒤. 그. 금. 을. 초. 죽. 날. 을. 구. 하. 고. 구. 리. 못. 하. 여. 죽. 거. 른

일노 췌 날. 을. 영. 장. 하. 고. 그. 남. 은. 거. 손. 그. 락. 임. 의. 로. 하. 라. 하.
니. 령. 리. 그. 금. 을. 다. 모. 하. 여. 우. 존. 의. 게. 청. 하. 여. 그. 장. 수. 를. 오. 그. 죽.
의. 서. 죽. 이. 고. 그. 금. 을. 취. 하. 여. 가. 락. 서. 더. 니. 그. 후. 삼. 년. 만. 의. 경.
리고. 향. 으. 로. 도. 라. 갈. 서. 벼. 가. 온. 리. 이. 서. 후. 하. 여. 소. 리. 질. 너. 스. 스.
로. 부. 르. 지. 췌. 모. 리. 나. 는. 장. 수. 아. 모. 라. 하. 며. 정. 가. 를. 부. 른. 너.
사. 짓. 고. 정. 가. 의. 희. 하. 는. 비. 되. 므. 말. 하. 더. 니. 밋. 집. 의. 락. 라. 는.
조. 크. 게. 소. 리. 하. 여. 이. 전. 말. 을. 하. 며. 청. 은. 죄. 를. 드. 러. 스. 스. 로. 니.
를. 취. 췌. 이. 니. 집. 사. 름. 이. 말. 가. 하. 여. 철. 된. 를. 췌. 아. 손. 주. 췌.
관. 을. 가. 락. 스. 스. 로. 췌. 가. 습. 을. 지. 르. 거. 를. 췌. 아. 스. 니. 손. 가. 락. 으.
로. 는. 을. 췌. 췌. 망. 을. 은. 췌. 히. 니. 피. 흐. 르. 며. 죽. 으. 다. 라.

朋友惡報

荆溪二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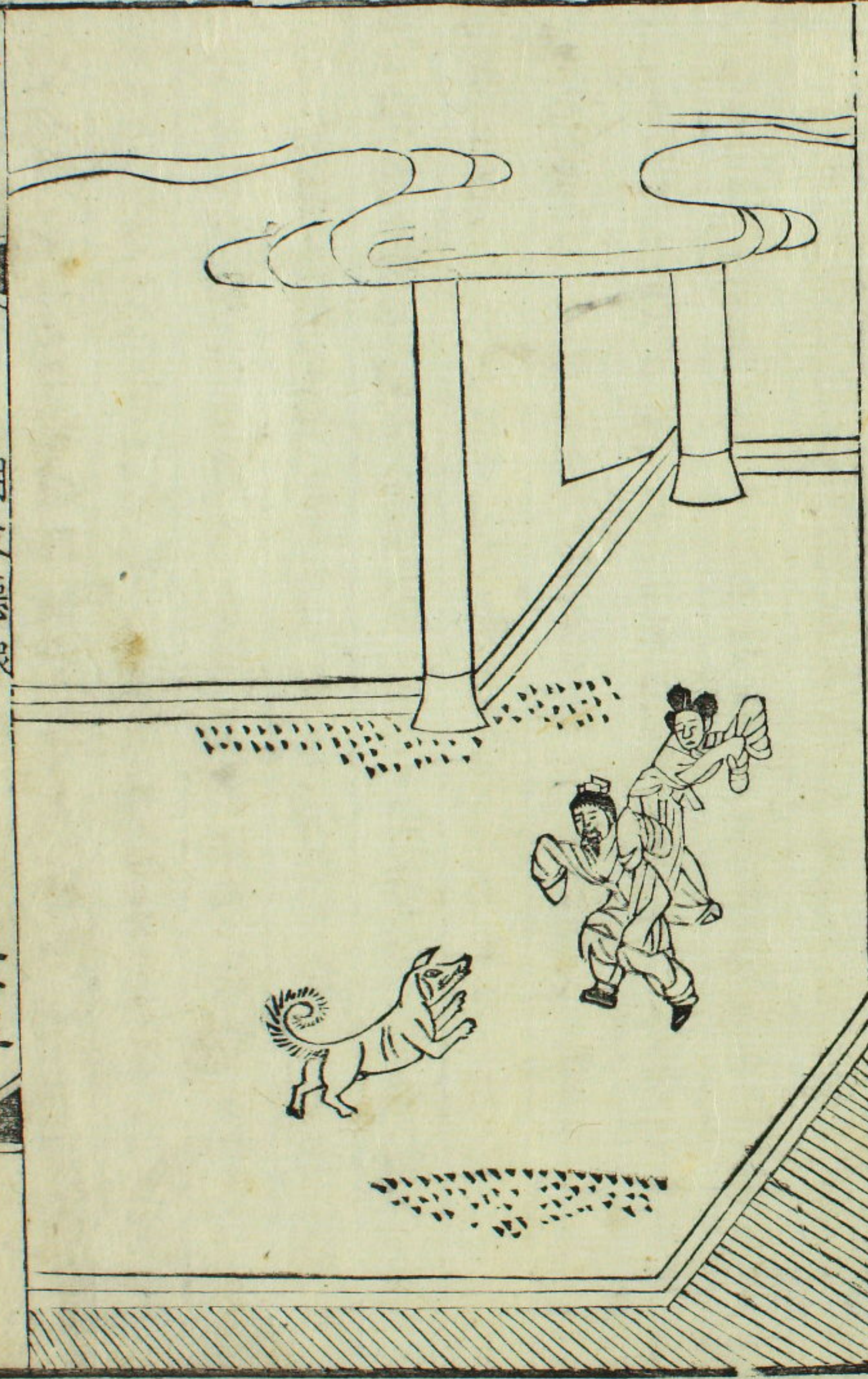


荆溪有二人幼年相善壯而一豐一窶窶子妻美豐子設
謀謂有富家可投生計窶子感謝豐子具舟并載其妻以
行將抵山謂曰畱汝妻守舟吾與汝先往引至林中出腰
斧斫死伴哭下山謂其妻曰汝夫死于虎婦大哭偕上山
又引入溪處擁抱求淫忽虎出叢林間嚙豐子去婦驚走
以夫果落虎口也哭還遙望山中一人哭來駭以為鬼也
至則其夫相持大哭各道其故轉悲為喜歸于里中

형제스히두사람이이처로친밀하니한사람은부요하고한
사람은간구한지라그간구한사람의체심히아름답게는부
요한사람이간계를너이니르되한곳의부지이스나가히트
락하여성계를얻으니너너의하여인도하리라하
고간구한사람의부취를이그러비의오라니간구한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秋靈慶



成集卷第

四

朋友惡報

五十五

宋袁粲因恥事蕭道成既遇害有幼兒方數歲乳母攜之
 投粲門生狄靈慶慶曰吾聞出郎君者有厚賞乳母呼號
 曰公昔與爾有恩故冒難歸汝若殺郎君以求利神明有
 知行見汝滅門也兒竟死兒存時故常騎一大甕狗戲死
 後年餘忽有狗走入靈慶家遇靈慶於庭即嚙殺之遂并
 嚙殺其妻即郎君所騎大甕狗也

송나라 덕신 원찬이 송이 망하고 비제 큰 심기 지아니
 려하. 여이 의히를 만나고 어리나 드르이나 히수삼세라
 구유되이그고원찬의 문성적. 녁경의 집으로가삼기
 려하. 니 녁경이므로되니드르. 니 처아히를잡아가는처
 이시면. 구유상을바으리라하. 니이 가히부리큰바으를뚝다
 하. 저를구유되소리질너와리우리공이일즉. 네게은혜

를잇치스. 니이러므로어려우물무릅쓰고네게도라와
 거늘네만일. 유리아기. 늘히하. 여니를. 채하. 지니
 신. 병이. 브리. 으. 시. 니. 장. 초. 버. 문. 으. 면. 으. 라. 하. 더. 니. 그. 아. 히
 필. 경. 죽. 으. 니. 라. 그. 아. 히. 스. 라. 실. 씨. 의. 집. 의. 큰. 스. 비. 슬. 리
 이. 처. 라. 고. 히. 문. 으. 더. 니. 그. 아. 히. 죽. 은. 지. 히. 가. 지. 는. 후. 의. 녁
 경. 의. 집. 으. 로. 드. 리. 드. 라. 녁. 경. 의. 부. 으. 를. 물. 어. 함. 의. 죽
 이. 니. 라

陳進士



陳某中萬曆乙未進士未遇時館於某家與其婢通惟同
 館金某與陳之表兄某知之向囑勿泄及陳登第許金厚
 報金亦不望報也陳在任屢書邀金金至任所送居僧寺
 每有關說輒辭事小一日獲大盜數人陳語金曰可矣非
 三千金勿允又囑曰此盜也去則難追銀須封貯金信之
 與盜講定封貯及赴鞠則陳變色加刑令供贓物所貯處
 金不知機設奮身隨行陳命擒下坐以窩頓之罪使者即
 歸報表兄某奔救已斃於獄矣未幾陳出謁上臺夜登舟
 聽鍊鐘聲甚眾從者啓撥見牛頭獄卒無數慌忙告陳亦
 惕然就寢夢攝至閻羅王殿跪於門外見金某蓬頭流血
 與已對質閻羅王切指訶責命獄卒以尖刃刺其頭血噴
 丈餘而殞驚覺即命迴舟歸衙至儀門見金某蓬垢以待

隨之入陳頸遂腫漸大如斗鑿云必須用尖刀開之方可
刀下血噴丈餘而死一如夢中

만년년간의 선비진성이잇서궁문하미누집의하장하더
니쥬인의시비르스동하니오직하가지로잇는김성과진성의
포형이이닐은아는지라진성이김성드러당부하여누선리
말나하고또니로리맛당이후이잡하리라하더니그후진성이등
과하의의임하고자도편지하여김성을칭하거늘김성이
그임소의니니철의보니의머물게하고미양형초의것을
말하거늘그년이철다하고시형치아니하더니일일은큰도적두
어슬잡앗는지라진성이김성드러말하여크도디이닐이가장
도흐니네그도적드러니르되칭하여노흐리라하면제즐저조초
리니칭은삼천금이아니여든허라지말나하고또가마니

닐니와이느도적이라형서미지못하거시니만일몬죄노흐
면밭을곳이업스리니모로미몬죄봉치하계하라하니김성이
올히년여도적으로더부러칭천슈효를칭하고은조를가려
라가김성의최소의봉치하여스더니밋도적이아래흐름이
의르더하여장물감촌곳을고하라하니도적이아래흐름이
거지못하여김성의곳의두물고하니진리문득김성을잡
아느리워도적의립쥬인이라하여스죄의미촌지라김성이
사름으로급히보니여진가의포형의게고하여구름을칭하
니그포형이늘나달녀오미받쳐옥중의셔쥬엿더라오리
지아니하의진리상스의비알하리서밤의비르라고가더니홀
연외스소리만하나거늘종조하여금선창문을열고
보니무슈하우두귀졸이오는지라진리듯고또하칭연하여

취침호더니삼의귀졸의게잠혀넘나천의드러가운백괴살
 어안적눈을드러어보니김성이이봉두난발의피르른흔니고
 웃치딛송호였더라넘와이취지적우조른명호여선조가
 혼칼노그머리를지르니피샘기름길나마호드가죽은지
 라놀나쳐여죽시비를두루혀아중의도라올서겨유문
 의니르니김성이노그모양으로와기드러다가사라드러오니
 진리즉시목의적중이발호의크기말만호지라의원이니
 르되모로미선죽호칼노질너과중호여야나으리라호고
 칼으르드러지르니피샘어길이넘고죽으니정히피샘
 과웃치되여사더라

